



데이빗 영맥주석

사무엘상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사무엘상 1장 =====

[삼상 1: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쉑의 현손이더라

[삼상 1: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의 세 자녀(게르손, 고핫, 므라리) 중 고핫 자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대하가 아닌 역대상 6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상 6:26]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배요 그 아들은 나핫이요 [대상 6:27]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대상 6: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만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며”

역대상의 기록과 사무엘상의 인물 계보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일치하지만, 할아버지는 '엘리후'와 '엘리압', 증조할아버지는 '도후'와 '나핫', 고조할아버지는 '슽'과 '소배'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대 이스라엘 계보 전승에서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별칭이나 발음으로 변형되어 불린 흔한 사례로, 두 본문이 가리키는 대상은 완전히 동일한 인물입니다.

엘가나는 비록 성별된 레위 지파였으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영구한 레위 성읍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슽 땅' 고지대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본문은 이 지역을 '라마다임소빔'이라 부르는데, 이는 고조할아버지 '슽'의 이름에서 유래한 '슽 지경의 라마(언덕)'라는 뜻입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상 속에서 레위인이 마땅히 거해야 할 성별된 성읍을 이탈하여 민간 지경에 동화되어 살아간 삶의 자리는 결코 평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떠난 삶에는 영육 간의 환난과 신앙적 위기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겪은 불임의 고통과 가정 내의 불화 역시,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린 당대 레위인 가정의 영적 현주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역시 거룩한 처소를 이탈하여 첩을 두었다가 기브아 비류들에게 끔찍한 참변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엘가나 또한 하나님의 창조 규례인 일부일처제를 저버리고 브닌나라는 첩을 취함으로써 가정 내에 극심한 반목과 파탄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계층마저 세상의 풍조와 정욕을 좇아 살았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내 임의대로 거처와 삶의 방식을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별해 주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삼상 1:3]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삼상 1: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삼상 1: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삼상 1:6]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비록 시대적 풍조에 밀려 거처를 옮기고 첩을 두는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엘가나는 매년 실로의 성막을 찾아 제사를 드리는 최소한의 경건한 종교적 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 16:16]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율법은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는 일 년에 한 번 실로를 찾는 것조차 상당한 열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화목제물을 드린 후 그 고기의 분깃을 나눌 때, 자녀가 없는 한나를 향한 인간적인 연민과 편애로 인해 그녀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중심의 행동은 도리어 브닌나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비

록 미움을 받는 아내의 소생일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반드시 두 몫의 유산을 기업으로 주어 장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명시합니다.

“[신 21: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신 21:16]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신 21: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브닌나는 엘가나에게 기업을 이을 여러 자녀를 낳아 주었습니다. 본문의 '자녀'는 복수형 <엘라딤>으로 기록되어 브닌나의 가계가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적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업을 생산한 가계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마땅했으나, 엘가나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랑과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한나에게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편애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과 법도체계여야 합니다.

[삼상 1:7]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삼상 1:8]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는 매년의 여정은 한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노골적인 편애를 목도한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격동하다'의 히브리어 <카아스>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영혼을 격렬하게 충동질하여 분노와 고통에 휩싸이게 만드는 악의적인 괴롭힘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한나의 심령에는 '번민'이 찾아왔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인 <라암>은 내면이 마치 거친 천둥소리처럼 세차게 뒤흔들리고 자극

받는 내적 폭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라며 인간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번민은 단순히 브닌나라는 인간적 대적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를 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영적인 애통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언약의 계보에서 끊어졌다는 영적인 영혼의 위기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한나는 시선을 인간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용된 히브리어 <헤칼

>은 가족으로 된 모세의 임시 성막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전(Temple)이나 왕궁의 형태를 갖춘 견고한 건물이 실로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실로의 성소 문설주 곁에는 늘 제사장 엘리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엘리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의자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목자가 아니라 권위의 자리에 고착되어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안일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고발하는 장치입니다.

"[삼상 4: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사십 년이었더라"

엘리는 결국 비둔함으로 인해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지는 참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탐욕의 의자에 안주할 때, 그 가문과 시대에는 영적 어두움이 도래합니다.

“[삼상 2: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삼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삼상 1:11]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통곡은 육신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기업을 갈망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였습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한나는 통곡의 자리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

생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만 살아가게 하겠다는 절대적 헌신의 표식입니다. 이 서원은 한나가 아들을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이나 한풀이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를 깨울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영적으로 구별된 나실인의 심령을 가질 때, 그 태를 통해 시대를 변혁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삼상 1: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묵한즉

[삼상 1: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삼상 1: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삼상 1:15]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삼상 1: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는 심령의 깊은 통곡을 내면의 기도로 승화
시키며 오랜 시간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한나의 중
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그
녀의 흔들리는 '입술'만을 주목했습니다. 외형적
인 현상에만 집착한 결과,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술에 취한 여인의 주정으로 오인하는 비극적인
영적 맹목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지면 성령의 깊은 탄식과 성도들의 찢겨진 심령
의 소리를 육적인 소음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한
나는 자신을 불량하고 악한 여자로 취급하는 엘
리의 오해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오직 여
호와 앞에 내 영혼의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깊은 원통함과 격동됨을 겸손히
설명했습니다.

[삼상 1:17]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1:18]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비록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큰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한나는 엘리가 제사장의 권위로 선포한 평범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평안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소유하여 이미 내밀한 성취를 확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마친 후 즉시 근심의 자리를 떨쳐내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먹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칼>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내면의 근심과 절망의 생각들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소멸시켰다'는 영적 승리의 의미를 가집니다. 온전한 믿음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빛으로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오늘을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삼상 1: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삼상 1:20]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다'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결코 잊고 계시다가 문득 떠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그녀의 고통과 기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시며 이제 행동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의 역사 이면에는 인간 편에서의 신실한 동역과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충만하여 남편 엘가나와 육체적 연합(동침)을 이루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생명의 잉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가 기도한 후 부지런히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최선의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나는 마침내 아들을 얻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어, 이 아이가 오직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응답의 증거"임을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삼상 1: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삼상 1: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한나는 실로의 성막 행차를 잠시 유보하고 가정에서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는 신앙적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떼는 대로 성막으로 데려가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라고 확고한 결단을 선언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의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규례를 지키는 한시적 서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을 자신의 품에 두고 생색 내며 키우는 방식을 거부하고, 젖을 떼자마자 평생을 성소의 장막에 귀속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양도하는 절대적 헌신을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얻은 귀한 자식마저 아낌없이 주님께 넘겨드린 어머니의 가차 없는 결단을 통해, 마침내 사사 시대의 캄캄한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젖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구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권위, 그리고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한 몸에 체현한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사사이자 선지자였으나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 양제되었습니다. 오직 이 세 가지 메시아적 직분을 골고루 완전하게 결합하여 수행한 사무엘은, 장차 왕이자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모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

였습니다.

[삼상 1:23]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삼상 1:24] 젖을 떼는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삼상 1: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삼상 1:26]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삼상 1: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삼상 1: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민수기 30장의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임의로 발한 서원은 남편이 거부할 경우 즉시 무효화될 수 있는 법적 귀속력을 가졌습니다.

“[민 30: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민 30:7]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 30: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그녀의 서원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는 엘가나의 동의는 이 가정이 비록 완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근간이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대략 3세 무렵,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이때 한나가 준비한 예물은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라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재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서원 제물의 규례를 아득히 초과하는 이 막대한 양의 예물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한나와 엘가나 가문의 감사의 깊이와 영적인 정성이 얼마나 뜨겁고 묵직했는지를 웅변합니다. 자녀를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거목으로 키워내기를 갈망하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폭적인 영적 정성과 아낌없는 헌신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한나는 과거 자신을 오해했던 엘리 대제사장 앞에 당당히 서서, 눈물로 심정을 통하던 여인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인 생명을 들고 찾아왔음을 선포하며 아이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영원히 귀속시켰습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삼가다' 또는 '스스로를 헌납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포함하여 독주를 삼가고 술 취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며 시신에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민 6:2-8).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으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는 물론이고 포도즙이나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술이 정신을

혼미케 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술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때에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술이 우상숭배를 행하게 하는 유혹의 것으로 취급하시고 술을 금하신 것입니다.

“[민 6: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 6: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한 나실인 서원 기간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길러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나실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것을 나실인의 상징으로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몸

을 거룩히 유지하고 조금의 흠도 없이 온전히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밀어 버렸을 때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을 때 생명의 주관자되시고 능력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였던 것입니다.

“[민 6: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한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해된 것과 죽은 시체는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지불식간에 시체와 접촉할 경우엔 다시 머리를 밀고 서원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부모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민 6: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민 6: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의 영적의미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사악한 우상숭배자들과의 영적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실인은 필요합니다. 나실인이 있어야 마귀의 악한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

결과 거룩함으로 악한세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나실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일정한 기간에만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서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세례요한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고보는 바울에게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의 나실인 종료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주면서 나실인 서약을 마치라고 명하였습니다.

“[행 21: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행 21: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

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소 나실인 서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보이지만 나실인 서원이 구약시대의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어져 왔지만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중심으로 스스로의 성전을 유지해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어떠한 의식적이고 드러나는 제도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형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나실인'이란 말은 오늘날 '거룩한 신부'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로 설명될 때에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인 셈입니다.

고체용량 측정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고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호멜(Homer), 에바(Ephah), 스아(Seah), 오멜(Omer), 갑(Cab)이 있었습니다.

호멜(Homer)

호멜은 이스라엘 고체용량 측정 단위 중에서 최대 단위입니다. 대략적인 용량은 230리터입니다. '호멜'이라는 뜻은 '당나귀'를 뜻하는데 이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쌀 한 가마는 80kg인데 이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80리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호멜은 대략 쌀 한가마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Ephah)

에바는 가루나 보리, 곡식 등의 양을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 됩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는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한 에바는 호멜의 1/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는 고체용량 측정 단위이긴 하지만 액체용량 측정 단위 인 '밧'과 같은 용량에 해

당됩니다. 거의 22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스아(Seah)

가루나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 대략 7.3리터에 해당됩니다(쌀 4되에 해당됩니다). 보통 팬케이크는 대략 밀가루 0.3리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스아로는 대략 2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멜(Omer)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성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의합니다. '에바'의 10분이 1에 해당되는 양이며 보통 2.2리터 정도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인의 하루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갹(Cab)

'갹'은 고체측량 단위로 1.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쌀 반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사무엘상 2장 =====

[삼상 2:1]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뱃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삼상 2: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삼상 2: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너무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고백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감사 기도는 마리아의 감사 기도와 비슷합니다. 비단 한나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마음에 감사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한나와 같은 감사 기도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시적 표현으로 자긍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당당함이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에 가장 낮은 자존감을 형성케 했던 사람은 브닌나였을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해소하고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1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당한 상처가 컸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3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교만한'이라는 말과 '오만한'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교만한'에 사용되는 형용사 <가보아흐>는 '높아진'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남들보다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오만한'이라는 형용사 <아타크>는 '거만한', '오만한'이라는 뜻으로 교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한나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 대해 언급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브닌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있어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브닌나였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자식

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자신보다 낮게 여겼으며 자식을 여럿 가진 자기 자신은 스스로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스스로를 너무나 높인 나머지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오늘날에도 사탄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멸망을 당할 때 이런 사람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삼상 2: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삼상 2:5]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록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삼상 2:6]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7]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역전 인생을 체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넘어진 자였고 이전에는 주린 자였으나 이제는 용사같이 힘센 자가 되었으며 유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잉태치 못한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자녀 둔 여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심을 깨

달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나?"라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며 효과도 강력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 심히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어떠한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었던 것은 아이 낳는 일이 그녀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그막에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삼상 2:9]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삼상 2: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 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악인으로 하여금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경건한'이란 의미를 담은 형용사 <하시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인'이란 말은 '사악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라사>라는 단어는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리키며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10절 상)고 고백하였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동사 <리브>는 '싸우다' 또는 '경쟁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상대하여 싸우거나 경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흔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숨어서 싸울 기회를 엿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하다'란 단어에는 '불평하다'란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불평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평을 털어놓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산산이 깨부술 것입니다. 하늘의 우뢰를 발하여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삼상 2: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세 살밖에 안 되었는데 부모와 헤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모와 헤어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 다. 부모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부모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로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란 생각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 집에 거할 수 없는 걸까?'란 생각이 들 때면 사무엘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행해서 부모 집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서의 생활이 좋았다 할지라도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하는 것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 의해 정성껏 길러졌다 할지라도 엄마의 따스한 손길과는 비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모든 좋지 못한 생각들을 던져 버리고 온전히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엘리의 엄격한 훈련 가운데 사역자로서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모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이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와 이별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존할 때 결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스스로 훈련받는 것은 누군가의 정해진 훈련자에 의해 훈련받는 것에 비해 매우 위험하고도 불완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삼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 '불량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불량자'라는 원어는 <베네 벨리알>인데 이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의 뜻은 '쓸모없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며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저들을 가리켜 '불량자'라고 말한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

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란 뜻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지 않는 행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들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도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사의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삼상 2: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상 2:14]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삼상 2: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삼상 2: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삼상 2: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진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인해 저들을 불량자로 취급하셨으며 결국은 저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은 불량자 두 아들을 통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기름 부분만을 번제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삶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대로 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앞 넓적다리와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취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신 18: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사환을 시켜 제사장의
것이 아닌 고기까지도 취하였습니다. 세살 갈고리
를 가지고서 삶고 있는 고기를 찢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였던 것입니다. 심지
어 삶아 먹어야 할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싶을 때
는 규례를 어기면서 날것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과 함께
생고기를 먹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취하였으며, 먹고 싶은 부위의 고기를 순
순히 내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고기를
빼앗기까지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율례를 어긴 것
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라는 말은 <나아츠>로서 '경멸하
다', '업신여기다'의 뜻 외에 '능욕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
님을 경멸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였
던 것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이처럼 하나님
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 '불량자'가 되었던 것

은 단지 저들이 고기를 조금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홉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쓸모없는 자'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의로웠지만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스스로 백성 위에 서서 백성의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역시 껍데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의 섬김만을 받았던 것이며 백성의 제사를 저들 스스로 취했던 것입니다.

[삼상 2:18]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베실 세마포 속옷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이 입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의복의 규례가 다소 변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입혀졌던 에봇이 일개 어린 소년에게까지 입혀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여 의복을 입히셨는데 의복의 규정이 변화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도 모호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차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막이 성전으로 변화된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변경시키

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때까지는 성막으로 존재하다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실로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웅장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시작은 실로에서부터였습니다. 실로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더 이상 모세의 성막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성막을 원하신 이유는 천국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장막 외의 건물 형식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장막이 있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장막'은 헬라어로 <스캐네>인데 이 단어의 뜻이 구약 시대의 성막을 의미하는 <미쉬칸>과 뜻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장막을 보고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모세처럼 하늘의 장막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후대 사람들이 제멋대로 성막을 성전으로 변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삼상 2:19]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겹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삼상 2:20]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삼상 2:21]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는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하였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 대신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의 축복대로 한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말대로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저주 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받을 율법과 저주를 받을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복문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은 숲이 풍성

한 산이 되었는데 저주문이 선포되었던 에발산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남북에 위치한 산입니다. 같은 지역에 놓여 있는 산이지만 축복된 말과 저주의 말에 따라 산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한 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배우자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저주가 배우자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의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파카드>인데 이는 '방문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때를 잡아 방문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의 축복 기도문에 재촉을 받아 한나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셨을 때에 엘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서 한나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삼상 2: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삼상 2: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삼상 2:24]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삼상 2: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삼상 2: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났을 때 엘리의 나이가 어느새 98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은 한나의 아들이지만 엘리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땔 즈음해서 성전에서 쪽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대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과 두 아들을 가리켜 서로 다른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성장했지만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바라보는 엘리의 마음은 흡족함이 있었을 테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바라볼 때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고 성장할 때마다 더욱 아들들로 인한 아픔은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지만 사람에게에는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에게에는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예수님과 많이 닮았던 자였습니다.

“[눅 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삼상 2: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2: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2: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

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삼상 2: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 2:31]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삼상 2: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삼상 2:33]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삼상 2: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

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선지자의 명한 말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인정하신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선지자의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적 역

할을 감당합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우신 사역자의 신실한 선포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들려지는 저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이 끊어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이을 지라도 가문 중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엘리 가문은 노인이 없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된다는 예언 역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되었을 때 엘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이러한 끔찍한 저주가 임하게 하신 이유는 엘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맘대로 제물과 예물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29절 중). 엘리는 두 아들이 행한 죄악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엘리에게 있어서 두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30절 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꾸셨습니

다. "...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30절 중).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속하신 바를 바꿀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내리셔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시어 사람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변경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도 얼마든지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 나

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30절 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존중히 여길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를 동등하게 영화롭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하나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영화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것이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은 '믿

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천국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로 천국을 구성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아할 때 멸시를 받았다고 여기십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자신을 위해 드리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죄악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빛어진 우리의 육신을 술통으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향기로운 화제의 연기가 피어나야 할 성전을 담배 연기로 가득 차게 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거나 능욕하거나 때리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의 자녀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집안은 깨끗이 정리하면서도 교회의 물품은 전혀 정리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보다 자신의 집을 더욱 깨끗이 하거나 더욱 아름답게 치장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먼지가 집안의 먼지보다 더 많이 쌓이게 방치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삼상 2: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 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 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 리라

[삼상 2:36]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얹드려 가로 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35절 상).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충실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충실한 사람을 세우시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실한'이라는 말의 동사 '충실하다'는 <아만>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만>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후원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일을 시켜놓고도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스럽거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을 수 있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괜히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35절 중)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어찌 마귀를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정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

[삼상 3: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희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야카르>는 '귀중한', '빛나는', '희귀한'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서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이다 보니 '이상' 또한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시현'이나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통로입니다. 이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환상 또한 보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덩달아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된 까닭은 엘리 대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정확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엘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영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막히면 아래에서도 막히게 됩니다. 위가 뚫어져야 물이 아래로 흘러 들어오는 것

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잘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 아버지가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 역할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삼상 3: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2절 상). 엘리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그가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의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육

체적인 시력보다는 영적인 시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의 영적인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2절 하).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닌 대제사장을 위해 마련된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전과는 달리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이 거하였던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이 성전 전체를 의미한다고 영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 처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면 홍해가 갈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면 반석이 실제로 갈라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의 성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엘리의 거하는 장소와 사무엘의 거하는 장소를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였지만 사

무엘은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자기 처소'와 '하나님의 궤'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 옆에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하는 장소는 당신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고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삼상 3: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삼상 3: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삼상 3: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삼상 3: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삼상 3:8] 여호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
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삼상 3:9]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
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언
약궤 옆에서 거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
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들려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습
니다. 그저 엘리의 음성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두 차례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
리의 음성으로 착각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
별하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
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인 줄 착각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기는 하였지만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부모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또한 곁에 없는 사람이 들려준 환청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사무엘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당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까스로 들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입니다.

[삼상 3: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삼상 3: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삼상 3:13]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삼상 3: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10절 상)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적 형상으로 서 계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영적인 분이라 하실

지라도 얼마든지 신현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시대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외형적 모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임재의 현현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사무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한 인간적 형체로 보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10절 하)라는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형상이 전면적으로 나타났다면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라는 말보다는 "주여, 어찌하여 제게 나타나셨나이까?"랄지 아니면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모습을 대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듯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찌면 내밀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13절 상)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13절 하)였습니다. 엘리는 뻔히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실 줄 알았 으면서도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지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삼상 3: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

기를 두려워하더니

[삼상 3: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지

[삼상 3:17]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3:18]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도 남김없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그는 "...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18절 하)고 말했습니다. 왜 엘리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체념하였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의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엘리와 같이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결코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경고를 내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자에 앉아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보다 아무런 회개조차 하지 않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엘리의 영적 무감각을 더욱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최선으로 기도해야 합

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최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를 즐겨 맞으십니다.

[삼상 3: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삼상 3: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삼상 3: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19절 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후견인보다 더욱 강력한 후견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있겠습니까? 하

나눔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일
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

[삼상 4: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
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크에 진
쳤더니

[삼상 4:2]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
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가 사천 명 가량이라

[삼상 4: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
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
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삼상 4:4]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
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
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였습니
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생활을 해온 민족

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13세기 말에 헬라인들의 압력을 피해 애굽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인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가나안 땅의 지중해 해안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된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인데 그 당시에 이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강력한 군대를 구성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삿 13: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 패하여 4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여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가슴 아파하며 “...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3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에벰에셀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의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 때
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
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
나가라 하리라”

‘에벤에셀’은 블레셋 족속과 싸움을 벌였던 장소
로서 이스라엘이 두 번씩이나 패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임
을 당하였으며 언약궤가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
아벡’은 이스라엘이 진 쳤던 에벤에셀 서쪽 약
3.2km 지점인 아르곤 강의 근원지 근처로서, 샤
론 평야의 한 지점입니다.

[삼상 4: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삼상 4: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찜이
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
은지라

[삼상 4: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
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
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삼상 4: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삼상 4: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삼상 4:10]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앞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패하여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할 때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으며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 죽음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는 생명도 없어집니다.

[삼상 4: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삼상 4: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와 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 오며 고하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삼상 4: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현화하는 소리는 어찜이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삼상 4:15] 때에 엘리의 나이 구십팔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삼상 4: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삼상 4: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삼상 4: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

사가 된지 사십 년이었더라

엘리는 전쟁에서 패한 것과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마음에는 전쟁의 승패 여부나 두 아들의 생사에 대한 소식보다 언약궤에 대한 내용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 그 마음이 여호와와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13절 중).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이 그 마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것 자체가 엘리의 마음을 떨게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언약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패할 때에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는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은 더 이상 엘리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문 곁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18절). 엘리가 문 곁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의자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엘리는 평생을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를 가리켜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사'라고 언급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의자에만 앉아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찌 '사사'된 자가 의자에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사'라면 당연히 칼을 들고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서 자신이 즐겨 앉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며 평생을 의자 생활만 했습니다.

성경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를 가리켜 "...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18절)고 말하였습니다. 엘리는 평생을 의자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둔했습니다. '비둔하다'란 단어 <카바드>는 '무겁다', '힘이 들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자를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몸무게에 힘을 더하여 암전하게 의자에 앉게 만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일평생의 삶을 소비한 결과로 인해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의자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의자에서 자 빠지게 하셨으며 더 이상 앉을 의자를 없애 버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신 또한 엘리처럼 의자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조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당신이지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정욕만 추구하는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십시오. 하

나눔께서 당신을 의자에서 자빠지게 하시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엘리처럼 목이 부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삼상 4:19]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삼상 4:20]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삼상 4:21]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삼상 4:22]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가 산기가 가까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까닭은 "...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19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약궤와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취하며 살고 있습니까?

언약궤의 축복

당신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이 죽어 없어져서 당신의 영(spirit)이 활동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spirit)으로만 당신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

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세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1-22)

모세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내게서 어떤 사람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보여주고 설명한대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대로 지었

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막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방주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리고 성막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줬을 때 그 모형은 바로 천국의 성막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모형으로 보고 설명으로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은 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의 크기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2.5규빗과 세로와 높이가 각각 1.5규빗의 작은 상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 규빗을 보통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이니 그것이 요즘으로 환산할 때 45~50cm로 볼 수 있습니다. 50cm로 계산했을 때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125cm와 세로 75cm, 높이 7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는 종종 언약궤의 크기를 사과상자에 비교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면 몰라도 성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키를 낮추고 몸무게를 줄여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모세는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두껍의 역할인 속죄소 앞에 서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언약궤로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약궤에 세가지 성물이 들어 있는 신성한 물건임은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라고 여쭙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때부터 언약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라는대로 따라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노력했습

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언약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매일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구름은 나를 덮었습니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구름은 내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내 모든 피부조직이 열려 그 구름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구름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구름이 너를 감쌀 때 사탄마귀가 조금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뒤 곧 바로 하늘의 문에서 레이저 광선같은 빛 줄기가 나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은 곧 예수님의 빛이니라... 이 빛이 너의 병을 치유하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은 치유의 광선이고 나의 육적인 병과 혼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사용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 빛이 네 가슴에 모아지도록

집중하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빛이
흐으러지지 않도록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빛 끝부분이 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돋
보기를 사용해서 빛을 집중할 때 종이가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가슴 한 부분에서 불이 타
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 불을 가지고
서 네의 병이 있는 곳에 옮기거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래서 나는 그 불을 아픈 곳에 옮기기 시작했
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아
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곳을 태우
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빛은 치유의 광
선으로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
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 속에 있는 질
병이나 더러운 것들을 태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월
씬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기 시작했으며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아픈 곳을 옮겨다니는 불은 갑자기 온 몸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불
덩어리가 뱅뱅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몸 전체가 불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
습니다. 바로 이 때 능력이 전이가 되었음을 깨달았
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불이었고 그것은 성령
님의 기름부으심이었으며 능력의 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

[삼상 5:1]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삼상 5:2]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삼상 5:3]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삼상 5: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삼상 5: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삼상 5: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그것을 다곤 신당에 안치

했습니다. 일종의 자신들을 지켜준 다곤 신에 대한 제물로 언약궤를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깨뜨려버리셨습니다. 목과 손발이 끊어지고 몸둥이만 남게 된 것을 사람들이 지켜본 이후에는 다시는 다곤 신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끊으신 것은 모든 우상의 생각과 행동을 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김을 당한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에게 경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긴다면 당신의 우상은 머리와 손발이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우상이 재물이라면 재물의 머리와 손발이 끊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재정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막히고 아래에서도 막혀서 재정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우상이 자녀라면 그 자녀의 머리와 손발이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혜롭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 중에 뛰어

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을 받게 되어서 뛰어난 자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다곤은 메소포타미아와 앗수르, 페니키아 지역에 널리 숭배되어왔던 우상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다곤 신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돗 성읍에 독종이 임하게 하셔서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이러한 독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건제를 위한 제물로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취하였다는 점을 볼 때 아마도 쥐에 의해 전염된 페스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상 5: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삼상 5:8]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삼상 5:9]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삼상 5: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삼상 5:11]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삼상 5: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

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비록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블레셋 적지에 홀로 계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다섯 성읍 중 대표적인 세 성읍을 독종으로 초토화 시키셨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계실 때 결코 하나님께서 위축되지거나 멸망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악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동경로

1) 모세 성막(주전 1445년) 출 40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따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함께 언약궤는 거의 39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2) 길갈(주전 1406 - 1400년) 수 4:19, 5:10

가나안 1차 정복 시기에 언약궤는 길갈에 안치되었습니다.

3) 실로(주전 1400- 1075년) 삼상 4장

여호수아는 가나안 1차 정복기간이 끝날 무렵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언약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 에벤에셀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4장

엘리가 대제사장인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아

벡 전쟁에서 패하여 4천 군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에벤에셀 전쟁에서 패하여서 군사 3만이 죽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5) 아스돗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1-8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성읍인 아스돗에 가져와 그곳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함께 안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셨으며 아스돗에 독종이 임하게 함으로서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6) 가드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8-9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옮겼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심한 독종으로 그곳 가드 성읍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7) 에그론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10 - 6:12

하나님께서 에그론 성읍 사람들에게 더욱 큰 환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에그론 성읍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환난을 당하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에 의해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이 멸망할까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단하고서 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 지경인 벤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세 성읍에 거한 기간은 7개월이었습니다(삼상 6:1).

8) 벤세메스 (주전 1075-1023년 사이) 삼상 6:13-21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언약궤를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안치했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드려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7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벤세메스 주민들은 서둘러 기랴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벤세메스에서 언약궤가 얼마동안 머물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스돗에서부터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대략 7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블레셋 지경에서의 7개월과 기랴여아림의 20년과 오벰에돔의 집에서의 3개월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9) 기랴여아림 (주전 1023-1003년, 20년) 삼상 7:1-2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서 보관하였습니다. 기랴여아림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을 떠나 홀로 안치된지 거의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까지 이후부터 다윗성까지의 기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백성을 통치하였으며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통치하였

던 기간(40년간)동안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는지 불확실합니다.

10) 오벰에돔의 집 (주전 1003-1002년, 3개월) 삼하 6:10-12, 대상 13:13-14)

다윗 왕이 백성 중 빼어난 무리 3만을 이끌고서 기랴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 올려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언약궤를 메었던 소들이 땀으로 인해 웃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지노하사 웃사를 치시고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감히 그 날에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서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안치하게 하였습니다.

11) 다윗성 (주전 1003-1002년) 대상 15:1-28

다윗이 여부스 족으로부터 점령한 시온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서 언약궤를 장막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12) 솔로몬 성전 (주전 959-958년) 왕상 6장, 대하 3:2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1년 8개월만에 성전을 짓습니다(대략 6년 6개월 소요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는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때까지(주전 586년) 거의 300년동안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6장 =====

[삼상 6: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개월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는 <사데>로서 '들'이나 '밭'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언약궤를 아스돗에 안치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신인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는 '들'이나 '밭'이 아닌 성읍 한가운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소 역시 성읍이었습니다. 가드 성읍이나 에그론 성읍은 모두 블레셋 지경에서 으뜸이 되는 큰 성읍들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연속적으로 언약궤가 안치된 성읍마다 독종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빈 들에 버렸습니다. 한동안 언약궤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 들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언약궤와 함께할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로 인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은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기보다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악인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만을 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저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버렸는데 그것이 최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인의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빈 들에 내동댕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내동댕이친다고 해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더욱 심해집니다.

[삼상 6:2]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삼상 6:3]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삼상 6:4]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삼상 6: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삼상 6:6]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

겻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6:7]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젓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삼상 6:8]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삼상 6:9]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들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언제 어떻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는 여호와의 궤를 보내기 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주로 타인의 권리나 성물을 침해한 범과에 대해 배상하는 의미를 담은 제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성물을 모독하고 재앙을 만났으므로 나름대로의 배상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후에 저들은 빈손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딸려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들이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종은 쥐를 통해 전염되었기 때문에 '금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독종의 형상은 블레셋 사람에게 임했던 '종처'나 '종양'의 형상을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금쥐'는 쥐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매우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저들이 언약궤와 함께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딸려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지경에 던져 버릴 수도 있었지만 만일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다가 더욱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는 "...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5절) 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둘로 새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소들이 어린 송아지를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젃 나는 소들이 송아지가 그리워서 다시금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송아지가 그리워 되돌아오는 경우는 블레셋에 임했던 독종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곧장 이스라엘 지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젃을 떼지 아니한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들이 제 새끼를 찾는 것은 본능이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거스르는 결정을 가

지고서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결국은 젖 나는 암소들이 송아지에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곧잘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는 것인가'입니다. 우연히 임한 재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을 꺼려합니다. 이는 재앙으로 인해 당한 고통이 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연히 임한 재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삼상 6: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삼상 6:11] 여호와와 그의 귀와 밧 금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삼상 6: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
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삼상 6: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
하더니

[삼상 6:14]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
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삼상 6:15]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
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
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삼상 6: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벤세메스로 보냈습니
다. '벤세메스'는 레위인 지파 중 아론 자손들이
거하는 제사장 성읍으로 에그론에서 22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곧장 실로로 보내지 않았던 것은 벤세
메스가 이스라엘의 지경이기는 하나 자신들이 관
할하고 있는 경내에 인접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

이며 이곳에 언약궤를 지킬만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젓 나는 암소 둘로 하여금 수레
를 끌게 하였습니다. 수레에는 언약궤와 함께 다
섯 금독종 형상과 다섯 금쥐 형상도 함께 얹혀서
보냈습니다. 암소들은 다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서 곧장 벤세메스 지역으로 갔
습니다.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
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
고..."(12절 상). 암소 둘이 제 새끼를 그리워하여
되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블레셋 지경에 임했던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리신 형벌이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두 암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인지 아니면 우연히 임한 재앙인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두 암소가 곧장 벤세메스로 갔
기 때문에 블레셋에 임한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
으로부터 임한 재앙이었음을 저들이 확신하게 되
었던 것입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언약
궤 수레를 보고서 그것이 언약궤임을 알고는 매

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수레를 파고 그 소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언약궤와 함께 금으로 만든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함께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은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언약궤와 함께 안치했던 행위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더럽힌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궤와 함께 다른 우상적 형상을 안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테지만 저들에게 있어서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은 언약궤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언약궤와 함께 '큰 돌' 위에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삼상 6: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삼상 6:18]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효대로였더라 그 돌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면 블레셋 성읍에 임한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 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또다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더욱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최대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건제의 예물로 다섯 개의 금독종 형상과 다섯 개의 금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성읍에 임하였던 독종의 형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옮겨졌기 때문에 쥐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바친 속건제나 금독종과 금쥐 예물은 모두 저들의 안전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진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성읍이 안전해지길 원했고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안전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마

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좋아하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과 같은 재물을 좋아하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삼상 6: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삼상 6:20]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

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삼상 6:21] 사자들을 기랴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벤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고로 많은 사람들이 살륙을 당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민 4:20]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성경 원문이나 사본에 따라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괄호 안에 '오만'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고대 사본의 필사 과정이나 인구 규모상의 문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70명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벤세메스에서는 매우 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벤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기랴터 아림 거민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언약궤를 받았을 때에는 크게 기뻐했던 벤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로 인해 주민들 중 몇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린 행위였습니다. 이는 저들의 필요에 따라 언약궤를 갖고 싶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언약궤를 크게 기뻐하다가 언약궤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자 금새 언약궤를 버리는 행위는 오늘날 하나님을 들었다 놔다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를 벤세메스 사람들처럼 합니다. 저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저들이 싫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는 좋아하다가 배가 부를 때는 남은 음식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

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

[삼상 7:1] 기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삼상 7:2] 궤가 기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십 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벰세메스에서 기랴아림으로 옮겨졌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아비나답은 제사장의 가문인 듯합니다. 비록 기랴아림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갈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끄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사장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하 6:3]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삼상 7: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
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삼상 7: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
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삼상 7:5]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
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
하리라 하매

[삼상 7: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
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
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에서야 비로소 마음
이 여호와께 향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
는 기간이 무려 350여 년이나 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요단강을 건넌을
때가 기원전 1405년이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에
벤에셀 전투가 기원전 1075년이기 때문에 대략
3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탄생

한 때를 기원전 1100년으로 봤을 때 언약궤가 빼앗겼을 당시의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2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백성을 다스렸을 때는 그 이후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모세 이후에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진 지가 대략 350년은 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의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지파별로 생활을 하다 보니 저절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 저절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들에게 "...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3절)고 권고하였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슈브>로서 '회복하다', '돌

아가다, '전향하다'란 뜻과 함께 '회개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베콜레바브켄>인데 이는 '너의 마음 송두리째'라는 말입니다. 이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바알신'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신을 의미합니다. 아스다롯은 바알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주로 섬겨져 왔던 신입니다. '제하다'라는 말은 <하시루>로서 '뽑다', '떠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속국이었던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모인 그 날에 금식하며 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저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위한 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저들이 물을 부은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서 회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금식하며 저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회개와 함께 짝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한 회개에는 금식이 당연히 함께 할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로 인한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삼상 7: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삼상 7:8]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삼상 7: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삼상 7: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삼상 7: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벰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삼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요단강을 건넌 때가 기원전 1405년이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에벤에셀 전투가 기원전 1075년이기 때문에 대략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투를 가리켜 '아벡전투'라고 말하는데 아벡과 에벤에셀의 거리가 불과 3km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에벤에셀 전투'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아벡'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군대 본거지인 에벤에셀로 옮

겨졌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겼던 장소는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삼상 4: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
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크에 진
쳤더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저들이
어느 정도의 땅은 차지하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잃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닌 각 지파별로 생활했습니다. 하
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에
이끌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
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점차적으로 하나
님도 함께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고 300여
년 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입
니다.

저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오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지난 20년 전에 아벡전투에서 패했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8절 하)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저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드림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인으로부터 구원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기 이전에 번제 의식을 행하였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내가 전쟁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란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을 받으시고서 블레셋인들을 파쇄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번제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헌신과 함께 부르짖는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12절 하)란 뜻입니다. 지난 20년 전에 '에벤에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여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하였던 것은 참으로 영적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약궤를 빼앗긴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정욕 때문에 언약궤

를 빼앗겼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언약궤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비극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에벤에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상 7:13]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 으시매

[삼상 7: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 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 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삼상 7: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삼상 7:16] 해마다 벤휈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 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삼상 7: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최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

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하 31:1, 사 17:8, 렘 17:2).

바알 (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삿 16:23).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민 22:41, 삿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불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불(Baal-Zebub)'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낏(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낏,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낏'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낏'의 모습은 정열적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낏'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낏'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렘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못(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뭇'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뭇'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낏'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낏'은 죽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뭇'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얌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렘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말기 때는 더욱 몰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렘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렘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

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산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원전 2,500년 전부터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

[삼상 8:1] 사무엘이 늙으매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삼상 8: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삼상 8:3]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연도를 대략 기원전 1100년으로 보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연도를 기원전 1050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때 당시의 나이는 대략 5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50세면 척박한 고대 환경과 고단한 사역의 무게 속에서 육체적으로 이미 노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은 "사무엘이 늙으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였습니다. 성경

은 "...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2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두 아들을 자신의 사역을 돕는 보조 사사로 임명했던 듯 싶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의 사사로 임명했던 까닭은 인접 국가인 블레셋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무엘은 두 아들로 하여금 변방의 책임감을 느끼며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는 의도로 저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한 지역에 사사가 한 사람씩 책정되었는데 사무엘은 두 아들을 한 곳에 사사로 파견한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사사'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사무엘의 두 아들을 공의로운 사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은 사무엘의 영향이 컸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상 7: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삼상 7:16] 해마다 벰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삼상 7: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는 해마다 벰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온 이스라엘 지역을 부지런히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모세처럼 십부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대리 지도자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행정적인 일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일 처리 하도록 위임하였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모세 때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가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행정 조직을 갖추고 백성들을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부지런히 돌아다녔기는 했지만 모세처럼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이 도와주는 행정적인 시스템도 없이 혼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자연히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맡은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했고 가정을 잘 꾸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제대로 가족을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결핍되거나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어떤 것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인지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성막에 보내져서 부모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정에서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부모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이 엄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형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란 사람과 타인들과 함께 자란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성전 환경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의 내면 한구석은 외로운 광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 배경 때문에 어쩌면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섬세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 자녀들에게 애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엄격하게 훈련받은 방식대로 자녀들을 훈육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경건의 열매만을 바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바람과는 달리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세상 잡배와 같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마음 한곳에는 과거 엘리 가문의 비극에 대한 기억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까지 엘리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보며 자랐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홉니와 비느하스의 패역한 행위들은 어린 사무엘의 심령에 강한 경계와 기억으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 행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녀들을 보며 그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 자신은 어릴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의 곁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부르심을 받고 자랐기 때

문에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릴 때 목격했던 홉니와 비느하스의 불량한 행태가 역설적이게도 사무엘 자신의 두 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흔히 나타나는 아픔입니다. 부모는 신실하고 성실하며 매우 도덕적인 반면에 자녀들이 악하고 게으르며 방탕한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생활할지라도,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의 부재나 환경적인 결핍이 발생하면 그 자녀들에게서 과거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삼상 8: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삼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삼상 8: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

호와께 기도하매

[삼상 8: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삼상 8: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라마의 사무엘 집을 방문한 것은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모세 이후 거의 400년 동안이나 지파 자치제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군사력이나 조직적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5절)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6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가장 큰 까닭은 저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자신을 배척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무엘을 향해 노골적으로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은 늙고...”(5절). 저들이 사무엘을 늙었다고 말한 까닭은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신정 정치나 순회 행정 스타일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체제를 선호하며 구태의연해 보이는 방식을 쉽게 밀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무엘을 늙었다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실정까지 들먹였습니다. “...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5절). 사무엘이 노쇠한 것과 그 아들들이 패역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지,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사무엘의 지도력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체제 전환을 요구하기보다 사무엘

의 공의가 온전히 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대안이 없다"라며 사무엘의 신정 체제를 밀어내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깊은 실망과 거부감을 느꼈지만,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본주의적인 요청을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7절)며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과정을 허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마음이 상해있을 사무엘의 심정을 위로하시며 "...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긴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있음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에 단순한 위로로만 끝났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여 전신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버린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왕권을 거부한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선지자로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왕을 세우려고 함은 "...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8절) 행하는 우상숭배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까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의 선택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막아서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

한 왕정 체제 아래서 겪게 될 쓰라린 고통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선은 우리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안목에 좋은 것과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선택만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쓰라린 실패와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결국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삼상 8:10]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일러

[삼상 8:11]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케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삼상 8:12]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삼상 8:13]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삼상 8:14]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6]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삼상 8:17] 너희 양 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삼상 8: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가져올 대가와 부정적인 단점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중심에

인간 왕정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훼손하는 악한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되 그들이 직면할 현실을 엄히 경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상 8: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어리석은 요구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정 체제가 가져다줄 가혹한 수탈과 자유의 박탈에 대해 소상히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백성의 아들과 딸을 징집하고, 가장 좋은 토지와 소산을 세금으로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며, 결국 백성들을 왕의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왕의 제도에 대한 실상을 소상히 설명을 마친 사무엘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너희가

고집 부려 왕의 제도를 시행하다가 나중에 그 왕의 폭정과 압제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1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무엘의 강력한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의 제도를 갈망했습니다.

[삼상 8: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삼상 8:20]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삼상 8: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삼상 8: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주위 이방 열방들이 가진 화려한 왕정 체제와 강력한 군대 조직이 그저 부럽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20절)라며 자신들이 왕을 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투를 이끌어주는 인간 중심의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유익과 진리보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적인 가치와 번영을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눈앞의 장난감을 달라고 떼를 쓰며 조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실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고집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안목에는 좋아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 길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책임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집하여 얻어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힘들게 하고 깊은 영적 고난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된 선택을 통제하려다 도리어 관계를 그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며 그 선택의 대가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다시 고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왕정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

[삼상 9: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삼상 9:2]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삼상 9:3]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삼상 9: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삼상 9:5]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삼상 9:6]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삼상 9:7]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삼상 9: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삼상 9: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삼상 9:10]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 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 거의 온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

하고 겨우 600명 정도 남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삿 20:46]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옆
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이니 다 용사더라

[삿 20:47] 베냐민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
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
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바로 이 600명 중의 한 사
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거의 멸망을 당한 베냐
민 지파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야곱)
의 막내아들이었던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
항하여 거의 멸족의 위기에 놓여 있는 베냐민 지
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
하신 '사울'을 가리켜 '준수한 소년'이라고 언급했
습니다. 또한 그를 가리켜 "...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2절)고 언급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은 ‘매우 잘생긴 성인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잘생긴 어린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준수하여 체격이 남달리 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진정 그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성경은 당신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은 000 인데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무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더 작은 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상 16: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입니다. 사울이 준수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훨씬 준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이 훨씬 준수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다윗의 만형 엘리압을 보고서 용모에 반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용모가 뛰어난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던 것입니다.

"[삼상 16: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만 평가하는 사무엘을 꾸짖으시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일 사무엘이 직접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다면 그는 강력한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자신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준수하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 남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신체적으로는 건장하여서 전쟁에서 싸움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남달리 강하였으며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40km나 넘는 거리를 열심히 수색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사무엘의 제사 지내는 곳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 정도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은 기브아입니다. "[삼상 10: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사무엘의 집은 라마이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라마 근처 '습' 땅까지의 거리가 대략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토록 열성을 보였던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에 매이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강한 애착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사울의 이러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암나귀가 귀하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인 기스가 암나귀를 찾는 일에 귀한 자식까지 고생을 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력한'에 쓰인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이나 '부', '재산' 또는 '군대'를 의미하는 말로써 기스 집안이 부유한 job안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무슨 일

을 맡으면 강한 애착을 보이는 사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시켜 암나귀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4절). 살리사 땅은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사알림 땅은 벤세메스와 아얄론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찌나 열심히 암나귀를 찾았는지 집을 떠나온 지가 벌써 3일이나 지나고 말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성격이 어떠함을 알게 해 줍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3일이나 되었을 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님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5절 하). 사

울이 사용했던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암나귀를 찾아 나선 아들이 며칠 동안 돌아가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한번 집을 떠나면 여간해서는 일찍 돌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고작 3일 동안 집을 떠난 것을 가지고서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성격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환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7절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당연히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이는 '복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서 만난 다음에 후일에 다시 찾아와 사례를 드리면 될 것인데 사울은 드릴 예물이 없어 선지자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성격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환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 네 말이 옳다 가자..."(10절)하며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좋게 보면 그가 자신의 하인의 말도 귀담아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하인의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성격이 다윗을 만난 이후로 확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신이 들려 성령이 떠나고 스스로를 괴롭게 되었던 까닭도 사실은 그의 연약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의 담대하지 못한 성격과 시기 질투를 잘 하는 성격과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약한 성격 때문에 악신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삼상 16:14]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초대 왕으로 세우셨

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으며 그중의 가장 연약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그토록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토록 시기 질투심이 강하며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결정하시며 그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은 왕을 섬길 때 그 복은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삼상 9:11]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삼상 9:12]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삼상 9:13]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삼상 9: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드디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기브아에서 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사울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암나귀 대신에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울과 같은 인생역전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만 느끼고 낭떠러지 앞에 선 것과 같은 불안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날개를 달으셔서 창공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멋지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사울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선지자를 만나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듯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역전의 날개를 달아 봅시다.

[삼상 9:15]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삼상 9: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았노라 하시더니

[삼상 9: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사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15절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본문은 <갈라 에트 오젠>인데 이를 직역하자면 '귀를 열다' 또는 '귓속에 속삭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큰 소리로 하시기보다는 귀를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귀를 대고 속삭이듯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처럼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서워 모두 엎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보다는 귀에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 모두가 귀에 속삭이는 듯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온 회중에게 전달되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와 번개와 뱅뱅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큰 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그와 비슷하게 컸을 것입니다.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뱅뱅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러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린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들려졌으며 또한 그 소리는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또한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일 이때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님께만 들려진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조차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들려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귀에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들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영이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성령)은 우리의 영으로만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혼적인 마음의 생각으로도 들을 수 없으며 우리의 육적인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혼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당신의 육적인 귀로 들으려 하는 당신의 모습이 조금 우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삼상 9:18]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

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삼상 9: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삼상 9:20]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삼상 9:21]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은 산당으로 올라오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니라"고 말하면서 사울더러 산당으로 올라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19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선견자로서 사울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됴됨이가 어떠한지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세상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며 어떤 주식을 구입해야 대박을 맞을 수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지혜는 허락하시지만 세상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의 사업이 잘되는 것을 돕기 위해 충분히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을 위한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정욕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선견자가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찌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형편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속사정을 모두 꿰뚫어 보는 사무엘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위

대한 선견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더욱 사울을 놀라게 한 것은 사무
엘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의 온 집이 아니냐?"(20절 하)고 말했습니다. 사
울은 사무엘의 이런 칭찬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몸 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
다. 그는 즉시로 사무엘에게 "... 나는 이스라엘 지
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
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
하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말하면서 "... 당신이 어
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21절)라고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흡족히 여
겼습니다. 사울은 실상 그렇게 미천한 자도 아니
었으며 사울의 집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 미약하
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이 스스로 자신과 가문을 낮추었던 것은 사무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상대방을 향해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상

대방의 기분은 좋아집니다. 사실상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도 마음 한켠에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겸손한 자세를 보고서 오히려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흔쾌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향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상대방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삼상 9:22]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삼상 9: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삼상 9:24]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삼상 9:25]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삼상 9:26]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삼상 9:27]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간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라마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음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사울을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무엘은 사울을 수석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대략 30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는 왕을 세울 때 유력 인사들에게 먼저 인사를 시키는 절차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미리 준비하라 일러두었던 음식을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요리인이 가져온 음식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지냈던 제사는 화목제였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끝낸 다음에 함께 모여 화목제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리인이 가져왔던 넓적다리는 우편인지 좌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뒤편으로 주어진 오른쪽 넓적다리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좌측 넓적다리일 경우엔 함께 모인 사람들과 나눠 먹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드러졌던 넓적다리는 아마도 우측 다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귀한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되었던 넓적다리를 주었던 것은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통치는 사무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사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담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5절 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붕은 평평한 지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담화를 나눌 적합한 장소로 지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

[삼상 10: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삼상 10: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삼상 10: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벤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삼상 10: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삼상 10: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

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삼상 10: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실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이마나 옷 등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보다 먼저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믿었겠지만 제비뽑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먼저 지도자를 세우

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로부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음성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울에게도 있었

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며 그러한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 직접 기름부음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울의 마음에는 '아,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나보다'란 확신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의심이 가득 찬 사울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네가 찾으려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 하리요..."(2절 중)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것과 기브아에 있는 그의 부친이 사울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일어날 일은 베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

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는데 떡 가진 자가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건네줄 때 사울이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3-4절). 세 번째 일어날 일은 블레셋 사람의 영문 근처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사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확증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 그런 증표를 받

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그런 증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증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증표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증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증표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표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 스스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당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지 않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더 애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삼상 10: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삼상 10: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경은 사울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9절).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날의 모든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다 이뤄진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새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새'라는 단어는 <아헤르>로서 '다른', '또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쓰인 단어가 <레브>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네페쉬>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브>와 <네페쉬>가 똑

같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레브>는 <네페쉬>에 비해 다소 혼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쉬>는 자주 '영'(spirit)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새 마음'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울의 이전은 독립심이 부족하고 나약하며 결단력이 부족한 청년이었으나 그런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런 사람이 왕이 되게 할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새 마음'을 받음으로 인해 이전의 사울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울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수백 가지의 증표를 제시할지라도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마음들은 도저히 떨쳐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사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에게 '또 다른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의지가 필요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의지와 결단이 결여된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마음'〈레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의지와 결단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당

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마음'으로 일
어서야 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
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합
니다.

[삼상 10: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
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
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삼상 10: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
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
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삼상 10:12]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
라

[삼상 10:13]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
로 가니라

사울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자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증표들이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나타난 증표 중에서 눈에 띄만한 놀라운 것은 그가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울을 보고서 "...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11절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예언함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스럽게 표현한 것은 그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평범한 일들을 행하면서 지냈던 사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예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의 갑작스러운 예언에 대해 별로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말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할 때 사용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쓰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도 이런 비아냥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지도자가 이런 수치와 거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사울과 같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주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내해야만 합니다. 수치와 모멸감의 현장에서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나면 사람들이 남지만 당신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남는 것은 당신 뿐입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상 10: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

나이다

[삼상 10:15]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삼상 10:16]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자 사울의 숙부가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14절 상)고 물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해야 옳을 것인데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숙부가 그 집안의 일들을 도맡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일에 사울의 숙부는 사울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의 숙부를 가리켜 군대장관 '아브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삼상 14: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삼상 14: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숙부 '넬'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캐물었습니다. "...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15절). 그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처럼 소상히 알고 싶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숙부 '넬'에게 대략적인 일들은 말해 주었지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숙부에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숙부의 지나친 집요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전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삼상 10: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삼상 10: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삼상 10:19]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

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삼상 10: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삼상 10:21]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취한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은 성경에서 즐겨 사용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제에 사용된 두 염

소 중의 한 염소를 선택하여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질 때에도 제비뽑기 방식이 취해졌습니다(레 16:7-10).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질 때에도 제비뽑기 방식이 취해졌습니다(삼상 10:21,22). 그 외에도 제사장을 선출하고 성전의 문지기나 찬양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셨습니다(대상 24:5; 25:8; 26:13). 심지어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데에도 제비뽑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느 10:34; 11:1).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비뽑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비뽑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가 포함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질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흐름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주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주장이 높아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비뽑기 방식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참으로 공정한 방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제비뽑기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

취야 합니다.

[삼상 10: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삼상 10:23]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삼상 10: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
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
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
세를 외쳐 부르니라

[삼상 10:25] smoked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
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삼상 10: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
께 갔어도

[삼상 10:27]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
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비뽑기에 의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

되었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행구'라는 것은 여행자들이 가지고 온 짐을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는 숙식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가져온 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다'라는 말은 <하바>로서 '숨다'라는 뜻 외에 '물러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단순히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어 있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타국으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운 왕을 통해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보았을 때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으며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보느냐..."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24절)며 백성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보며 환호성을 터트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으심은 어찌된 일일까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잠 16: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의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랄>인데 이는 제비뽑기에 사용되는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만 행해진 방법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제비뽑기 방식을 취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에서의 제비뽑기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 방식이 하나님의 절대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케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소개되는 속죄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쳐진 두 염소가 있었는데 그 중 한마리를 제비뽑아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

졌습니다.

“[레 16: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6: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 16: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후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종족별로 땅의 위치를 정할 때에도 제비뽑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민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 26:56]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가나안의 첫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진멸한 이후에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때문에 패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12지파 중의 유다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지파의 세라종족이 선택되고 계속적으로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방식이었습니다(수 7장 참조).

이러한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한 절대능력은 사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됨을 알고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잘못으로 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기때문입니다(삼상 14장).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삼상 10:21,22). 제사장,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등의 직무를 위임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으며(대상 24:5; 25:8; 26:13),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데에도 제비를 뽑았습니다(느 10:34; 11:1).

신약성경에서의 제비뽑기

하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유다가 죽었을 때 새로운 제자를 선택했을 때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행 1:23]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 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행 1:24]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행 1: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행 1: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비뽑기 방식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제비뽑는 방식은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불화를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 누군가 선택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믿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

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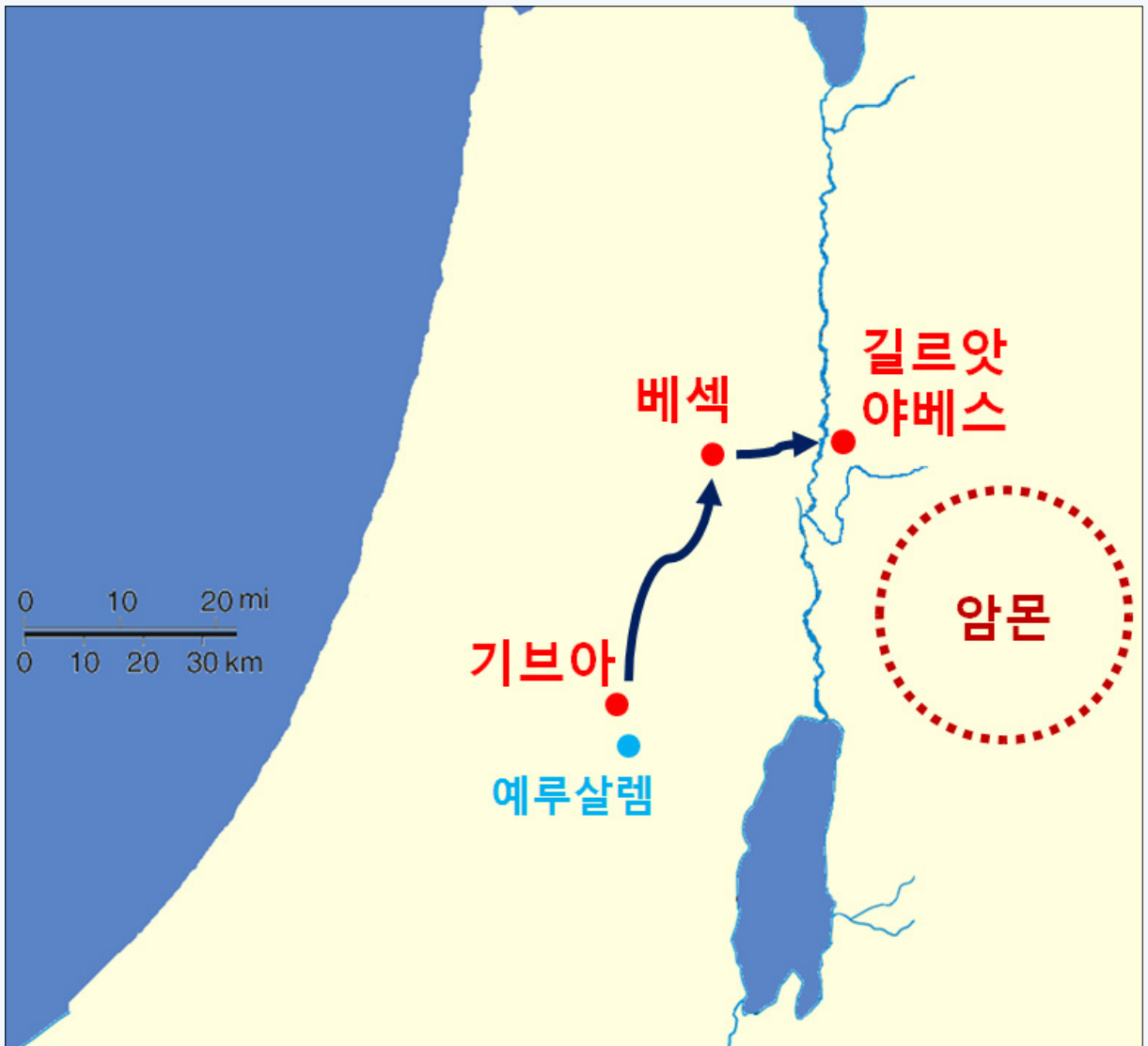
[삼상 11: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삼상 11: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삼상 11:3]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삼상 11:4]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사람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가장 먼저 위협하였습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의 거리는 불과 50k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이 가장 먼저 길르앗 야베스를 공략했을 것입



니다.

이미 암몬 사람은 지난 수십 년 전에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입다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삿 11장). 입다가 암몬을 진멸했던 때를 대략 기원전 108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대략 40년 만에 다시 금 길르앗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

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곧장 나하스에게 나아가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그리하면 너를 섬기리라"(1절 하)고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살고 보기 위해서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암몬을 진멸했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거의 승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예전의 '입다'와 같은 사사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2절 상)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른눈을 빼어야 언약하겠다는 말은 싸울 능력을 제어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들에게 있어서 오른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왼쪽 눈은 수비를 위한 의미라고 한다면 오른쪽 눈은 공격을 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지만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른눈을 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7 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암몬에게 항복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3절).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야베스 장로들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으며 암몬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베스 장로들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몬 사람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의 위협에 의해 크게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들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상 11: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아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삼상 11: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삼상 11:7] 한 거리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삼상 11: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람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왕이 되었 으면서도 농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위대합니다. 문제는 왕이 되었 으면서도 여전히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6절 상). '감동'이라는 단어는 <찰라흐>인데 이는 '발전하다', '번영하다'란 뜻 외에 '앞으로 나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에는 '달려들다', '몰아대다', '돌진하다'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울의 심령 안으로 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심령 속으로 임하십니다. 이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께 크게 감동이 되었을 때 그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6절 하).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한 겨리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7절 중)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8절 하).

농부가 분노하는 것과 왕이 분노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부가 분노해봤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껏해야 논을 태우거나 소를 잡아먹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분노할 때는 온 나라 백성에게 그 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지라도 별로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엄청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왕 같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농부로 살아갔던 사울이 갑자기 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슬피 울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슬피 울 수 있었던 것은 암몬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려고 바로 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사울은 원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농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농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라고 하나님께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농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로 태어난 사람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농부의 삶이 좋다고 해서 당신 맘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당신은 그 자리를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농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삶에 암몬을 보낼 것을 결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암몬'이 있는 것은 당신이 끝까지 농부의 삶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삼상 11:9]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삼상 11: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삼상 11:11]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삼 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게 다소 황당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9절 상)는 말을 사자로 보내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울과 뜻을 같이한 30만 명의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야베스까지의 거리가 7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곳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내일'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단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약속이 '내일'이 아닌 '단기간'이라 할 지라도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즉각적이고도 확신에 찬 약속은 야베스 사람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약속을 마음에 두면서 그런 사실을 마음에 감추고서 암몬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10절)고 항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는 암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사울은 서둘러 3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서 길르앗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암몬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3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계수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민 26:51]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고 선 자가 육십만 일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6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나 모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인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재정비하려고만 해도 꽤나 시일이 소요되었을 테지만 사울은 매우 신속하게 군대를 정비했고 서둘러 야베스를 향하여 진격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새벽에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삼 대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습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약속대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삼상 11: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삼상 11:13]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삼상 11: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삼상 11: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기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생각이 있었으나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완전히 백성의 마음이 사울에게 향해졌습니다.

백성들은 "...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이까"라고 말하면서 "...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12절)고 사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13절)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며 저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

[삼상 12: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삼상 12: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삼상 12: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부

분이 있다면 사무엘의 재가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모시고서 급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기름부음을 부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미뤘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미뤘왔던 까닭은 '왕정정치'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 가운데 사울에 대한 칭찬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대승을 거둔 소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3절)고 자신의 정직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정직성에 대해 모르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사무엘이 그 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직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2절 상)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노쇠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초라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서운함은 '왜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을 너희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2절 중)는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있다는 느낌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서운함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삼상 12:4]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삼상 12: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4절)고 사무엘의 정직성에 대해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이

러한 말은 사뭇 서운해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달래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의 인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5절 상)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하고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서운한 감정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무엘이 사람의 인정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서운함이 더할수록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

에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인정만을 기대한다면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는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때에 따라 변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삼상 12: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니

[삼상 12:7]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금새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과거 행적만 얘기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온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온전히 선지자의 자세를 취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생각하지 맙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심이 확실하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 누구의 인정을 바라겠습니까?

[삼상 12:8] 야굽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삼상 12:9]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
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
들이 치매

[삼상 12: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
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삼상 12: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
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
거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순간에 어찌
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
무엘의 설교는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상기시켰
습니다.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고생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
였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
성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들려준 그날 설교의 핵심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회개가 없는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허공에 떠도는 의미 없는 소리와 같습니다. 회개 없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

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들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9절 상)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저들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10절 상)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곧 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 이는 곧 그 사람을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술'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으로 대략 16km 정

도 떨어진 곳으로 북부 팔레스틴의 주요 성읍이
었습니다. 이곳은 납달리 지경에 속하였는데 사
사시대 초기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하솔 왕 야빈
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압제
했던 것입니다. 하솔의 압제 기간은 무려 20년 동
안이나 지속되었는데 이는 하솔이 철병거 구백승
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
다(삿 4:2-3).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와 사사 바
락을 통해 저들을 진멸케 하셨습니다(삿 4:4-24).
한편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명령에 따라 이스
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당사자였습니다
(삿 4:2).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
혀왔던 족속이었습니다. 다윗 즉위 초기까지도 계
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 정도였습
니다(삿 13:1).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삼갈을 통해 백
성을 구원하셨습니다(사사기 3장 참조). 블레셋
사람들의 두 번째 공격은 삼손 때에 일어났습니
다(사사기 13-16장 참조).

'모압 왕'은 '에글론'을 가리킵니다. 사사시대 초기

에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18년간 압제하였습니다(삿 3:12-14).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통해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삿 3:15-30).

[삼상 12: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삼상 12:13]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삼상 12: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

[삼상 12: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던 죄악을 돌아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통회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의 줄거리였는지 모릅니다. 정작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의 말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전혀 왕으로 추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서운함이 없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싫어한 보다 정확한 이유는 '잘못된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사울'은 '잘못된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왕입니다. 이는 마치 신발은 신발인데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과 같습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발이야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왕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14절 하) 이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잘못된 왕'으로 인해 하

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 여호와
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15절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왕'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왕'을 선택했기 때
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왕'
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
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왕'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
성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만 당신은 누
구를 왕으로 선택했습니까? 혹 당신의 배우자입
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녀입니까? 혹 당신은 세
상의 누군가를 당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
습니까? 당신이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신
의 '잘못된 왕'으로 인해 당신의 '진짜 왕'을 버리
는 일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상 12: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삼상 12: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삼상 12: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매우 큰 죄악임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놀라운 이적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큼을 밝히 드러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그런 약속을 한 때는 밀을 베는 때였습니다. 밀을 베는 때는 주로 4월-6월 사이로서 이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우리와 비가 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히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와 비가 임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심히 큼을 나타내는 것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뢰다’는 단어는 <카라>로서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이서 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아~ 아담아”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는 소리가 <카라>였습니다.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는 아담을 혼내려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찾을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라려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집나간 자녀를 찾기 위해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 바로 만져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왕 앞에 선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구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우뢰와 비를 내려 사무엘의 아뢰는 소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아뢰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라면 당신은 사무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이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주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입니다.

[삼상 12: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삼상 12: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삼상 12:21]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삼상 12:22]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

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셨을 때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와 비'는 저들이 하
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
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무엘에게 "... 당신의 종
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하면서 "...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
였나이다"(19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
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저들은 사무엘에게 부탁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야
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했습니
다. 이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
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면 우리
의 모습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 역시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무엘은 저들에게 "...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22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낯설게 만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을 지음으로써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맙니다.

[삼상 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삼상 12: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삼상 12: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24절 하)고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25절)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저들의 왕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을 밟았습니다. 멸망은 저들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차례입니다. 나와 당신은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23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에 자신의 약속한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그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의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알게 해 줍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최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

하 31:1, 사 17:8, 렘 17:2).

바알 (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삿 16:23).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민 22:41, 삿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불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뵘(Baal-Zebub)'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뵘'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낏(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낏,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낏'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낏'의 모습은 정열적

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낏'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낏'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렘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못(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못'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못'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낏'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낏'은 죽

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뭇'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얌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렘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말기 때는 더욱 몰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렘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렘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산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원전 2,500년 전부터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

[삼상 13: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이년에

[삼상 13:2] 이스라엘 사람 삼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과 베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삼상 13: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삼상 13: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좇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삼천을 택하여 이천은 자기와 함께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온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삼만이고 마병이 육천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병거가 삼만 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5절 중).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사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수만 해도 턱없이 적은 숫자였으며 사울과 베냐민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을 뿐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22절 하).

그런데 왜 사울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을까요? 물론 수비대는 적은 블레셋 군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의해 수비대가 진멸을 당했으니 블레셋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채 선제공격을 가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쟁은 오히려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부러 시작한 이유는 그의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겨우 만 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의 강력함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도 요나단의 활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

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훈련시켜 놓은 군사들 중 삼천 명만 선출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2절 하). 어떻게 삼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겠다고 자신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사울은 이러한 무모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굳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삼천 명을 가지고서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쳐서 진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가증히 여겨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사울은 국경 수비대를 침과 동시에 재빠르게 온 땅 이스라엘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블레셋이 공격해옴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이미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기 위해 일부러 약한 국경 수비대를 먼저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케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욕심에 의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못된 짓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이용하는 자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형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그 사랑하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삼상 13: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 치매

[삼상 13: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삼상 13: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삼상 13: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흠어지는지라

[삼상 13: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든 블레셋 군사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인들의 군사력이 "...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5절 중)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살려고 아주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다행히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남아 있었으니 그 수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니 육백 명 가량이라(15절 하 참조). 블레셋 군사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사

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조차 없었으니 어떻게 저 강력한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곡괭이나 도끼를 가지고서 달려오는 병거와 마병을 막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백성들은 점점 사울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600명이라도 남은 백성을 가지고서 서둘러 전쟁을 치르고 싶었던 사울은 급기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

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한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삼상 13:10]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 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삼상 13:11]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삼상 13: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번제의식을 마칠 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날보다 늦게 온 것입니다. "...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8절 상).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라는 말만 있는데 이는 사울과 사무엘간의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언제까지 간다고 약속하였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을 기다

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간다고 약속했던 날짜는 7일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도 오지 않자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한 죄였습니다. 번제의식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은 사무엘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왔더라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침범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를 가키려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월권'이라는 것은 남의 권세를 자신이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번제 의식은 사무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매우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월권행위를 꽤 많이 행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월권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간섭하거나 빼앗아서 안 됩니다. 이는 월권행위입니다. 배우자의 허락도 없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도 월권행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권리를 주지 아니한 채 나의 이익을 위해 무례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월권행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거나 남의 할 일을 내가 대신 행하는 것도 월권행위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월권행위를 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남의 것이 되더라도 행합니다. 남의 자식도 나의 자식이며 남의 배우자도 내 배우자입니다. 내가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되고 내 배우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내 배우자로 변해 버립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남의 일까지 도맡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삼상 13: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삼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은 "...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13절 상)고 말하면서 "...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13절 중)고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어떠한 회개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주 무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테지만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백 번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의미는 '심령의 귀'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열리는 것이 곧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울 왕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는 어떠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생활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서 자신의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상 16: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늘 깨어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듯이 그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삼상 12:23 상 참조).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무시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생활을 가리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의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도둑질하겠습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을 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치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감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 것입니까?"라고 항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것처럼 거짓된 불평을 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을 감행했을 때 일부러 자신의 군대 숫자를 줄였습니다.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수는 삼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일부러 삼천 명만 모집하고 나머

지 군사들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군사로 동원하기 위해 일부러 군사 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사악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교활하고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전쟁을 시작했던 사울이었기에 결국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번제의 식마저 자신의 손으로 하고 맙니다. 끝이 보입니다. 시작이 더러우니 끝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백성을 이용해 먹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간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삶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삼상 13: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육백 명 가량이라

[삼상 13:16]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삼상 13:17] 노략꾼들이 삼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삼상 13:18] 한 대는 벰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사울 왕과 함께 한 백성은 겨우 600명뿐이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했던 군사가 3000명이었고 온 이

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지만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600 용사 또한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지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함께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600명이 아니라 6억 명이 있어도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300명밖에 안 되었던 적은 수였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삿 7: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의 삼백용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였듯이 사울의 육백용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 하였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다행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만 만일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울의 시대는 그날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사울은 600명 군사를 데리고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의 군사로는 도저히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블레셋 군대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노략꾼들이 블레셋 군대의 진에서 나와서 근처 이스라엘 땅을 노략하였습니다. 노략꾼들의 한 팀은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팀은 벰호론 길로 향하였고 다른 한 팀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는 지경 길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략꾼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브라’는 벰엘 북동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해 있

었습니다. 그곳은 원추 모양의 산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알'은 오브라에 약간 못 미쳐 있는 넓은 지경입니다.

'벤훈론'은 므마스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스보임 골짜기'는 베냐민 땅으로서 예루살렘 북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삼상 13:19]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

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삼상 13:20]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로 내려갔었는데

[삼상 13:21]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
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삼상 13:22]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삼상 13:23]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므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우 600명밖에는 없
는 군사를 가지고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
셋 군사들을 대항하기도 역부족이었지만 무기조
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
과 창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로부터 뺏지 않고서는 그 이전까지 칼이나
창을 만져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
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전 지경에 철공이 없어졌
기 때문입니다.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철공을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 할 때에 블레셋으로 가서 철공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

[삼상 14: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상 14:2]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사울의 왕권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병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1절 중)이라고 권했습니다. 병기 든 소년은 단순히 병기만 들고 쫓아다니는 비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군을 도와서 보좌하는 강력한 용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사울 왕의 병기 든 자로 세워졌습니다.

"[삼상 16: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자고 한 것은 사울의 진영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적군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지만 사울의 군사는 겨우 600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아버지 사울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은 훗날 친

구 다윗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병기 든 소년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잃겠다고 걱정하였지만 자신 때문에 병기 든 소년의 목숨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국을 구하겠다는 마음도 본받아야 할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삼상 14: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성경은 매우 위급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에봇'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겹옷 위에 걸치는 것으로서 에봇에 함께하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이었는데 '아히야'에게 에봇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히야가 대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갑자기 '에봇'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요나단이 대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에봇'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봇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것입니다. 요나단은 에봇을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히야는 에봇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삼상 14: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삼상 14:5]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삼상 14:6]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삼상 14:7]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삼상 14:8]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삼상 14:9]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

지 말 것이요

[삼상 14: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병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은 무작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만일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사람 앞에 드러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저들이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무작정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요나단의 방법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요나단의 방법이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나단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우림과 둠뭉'을 통한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예'와 '아니오'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림과 둠뭉'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뭉을 놓고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전쟁은 이기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우림과 둠뭉'에서 '예'나 '아니오'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 형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우림과 둠뭉을 통한 방법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림과 둠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학원에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좋은 감정이나 뜨거운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서 혼자서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상 14:11]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삼상 14: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 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삼상 14:13]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

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
였으니

[삼상 14:14]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 인 가량
이라

[삼상 14:15]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
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 손발로 붙잡고..."(13절 상)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절벽 위의 고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
레셋 사람에게 나타날 때 블레셋 사람들이 "... 우
리에게 올라오라..."(12절 중)고 하였을 때 하나님
께서 블레셋 사람을 요나단 손에 붙이셨음을 요
나단이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
체하지 않고서 손발로 절벽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절벽 위로 올라가자마자 삼시간에 20
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블레셋 지경에
는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온 부
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습니다. 그들의 떨림 때문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어찌 사람의 떨림으로 인해

땅이 떨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떨림으로 인해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는 저들이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해졌던 것입니다.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노략꾼들이 한차례 블레셋 진영의 질서를 깨뜨렸지만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서'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칼과 창에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서'가 무너지자 결국은 600명에 의해 처참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질서가 깨지면 우리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질서를 깰 수 있으며 헌신하는 자들이 질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헌신도 없지만 질서를 깨지 않는 사람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능력 있는 자식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면 한순간에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삼상 14: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삼상 14: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삼상 14:18] 사울이 아히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삼상 14: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요나단에 의해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울 진영 파수꾼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울 진영(게바)과 블레셋 진영(믹마스)과의 거리는 대략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은 서둘러 사울에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사울은 파수꾼의 말을 듣고서 누군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한 백성들의 수가 고작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황급히 대제사장 아히야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있는 우림과 둠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18절 상).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고 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에봇'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해가 기원전 1050년이었고 므마스 전투가 2년째에 일어난 전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약궤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벤에셀 전투(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기원전 1075년이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 성으로 가져온 것이 기원전 1003년(통일왕국)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18절 하)라고 언급했던 것은 '에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서둘러 가져오라고 명했던 것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였습니다. 에봇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생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은 서둘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내 곧 아히아에게 "... 네 손을 거두라..."(19절 하)고 명하였습니다. '거두다'라는 말은 <아사프>로서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준비하는 모든 의식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사울이 아히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는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19절 중). 이 말의 뜻은 블레셋 진영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어졌던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찌해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던 사울이었지만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도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곧장 '우림과 둠밈'을 내팽개쳐 버리는 사울의 모습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골방에 들어가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전혀 골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용을 당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사울 스스로의 판단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회사 출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으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관계'보다는 실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뜻을 제공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정답을 말하는 컴퓨터와 같은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뛰어난 컴퓨터도 아닙니다.

[삼상 14:20]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무를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삼상 14:21]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

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
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삼상 14: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
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삼상 14:23]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
원하시므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울은 그 즉시로 모든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사
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20절 상). '모이다'는 말은 <자아크>로서 원래는 '고함을 치다', '소리를 지르다'란 의미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소집하다'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600명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소집했던 병력은 3000명이었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소집했던 병사들도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통적으로 몇 만에서 많게는 몇 십만까지 모이니 상당히 많은 수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병사들은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병사들은 대부분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도망친 병사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도망쳤던 3000명 병사들도 다시 전쟁에 참여하였고 징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22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에 의해 강제 징집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21절 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징집되어서 블레셋 진영에 함께 참여한 병사를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징집되어온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23절 상)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

실상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는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상 14: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삼상 14: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삼상 14: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삼상 14:27]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삼상 14: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삼상 14:29]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삼상 14: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삼상 14:31]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사울에게 있어서 므마스의 전투는 자신의 왕권 확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가까스로 확보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24절 중)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선포로 인해 백성들은 지치고 힘

들어 피곤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채 도망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우는 백성의 마음을 사울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고 군사들은 백성이었습니다. 어찌 왕과 백성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장과 사원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와 자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너도 나처럼 나가서 돈 벌 어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장이 사원보고 "네 회사인데 어찌하여 나같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왕이 백성에게 "네가 왜 백성을 위해 나같이 고심하지 않느냐!"고 서운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왕의 자격이 없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당신이 부모의 자격이 없으면 어찌하여 당신을 부모로 세웠겠습니까? 당신이 사장의 자격이 없으면 어찌하여 당신

을 사장으로 세웠겠습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면 사원과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백성과 달라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뺏기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사원처럼 일하면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처럼 행동하면 부모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백성처럼 행동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싸울 테니 백성들도 그리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도 100명을 죽일 테니 너도 100명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사울처럼 싸움을 잘하지도 못하며 사울처럼 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호미 들고 싸우는 사람과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자신처럼 그렇게 의욕적

으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나만 생각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더욱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포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행동에 대해 "...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29절 상)고 주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곤란케 하다'란 말은 <아카르>로서 '자극하다', '화를 끼치다', '괴롭히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선포는 백성의 심기를 자극했으며 백성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심히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수는 있었지만 백성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 백성들은 사울로부터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아서...

[삼상 14: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삼상 14:33]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삼상 14:34]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삼상 14: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였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은 저녁 때까지였기 때문에 저녁이 되자 백성들이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

이 허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 있는 채 짐승을 먹게 되었습니다. 원래 짐승은 돌 위에 올려놓고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배가 고프 나머지 성급히 땅에서 짐승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피와 함께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레 7:26]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말라

[레 7:27]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성들이 피 있는 채 짐승을 잡아 갑자기 "...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33절 하)고 명하였고 그 돌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기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35절 상)라고 기록하였지만 실상은 짐승의 피를 빼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짐승을 그 돌 위에 올려놓고서 짐승을 잡아 먹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쌓는 것과 같은 '단'을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단'을 쌓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단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 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단'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쌓은 '단'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삼상 14:36]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삼상 14:37]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삼상 14:38]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보자

[삼상 14: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삼상 14: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삼상 14: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삼상 14:42]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삼상 14:43]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나이다

[삼상 14:44]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14: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배가 부르게 한 후에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까지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의 신중을 위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사울은 아히야를 불러다가 우림과 둠임으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요구에 응한 아히야는 "...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이다..."(36절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히야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더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원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기 때문입니다.

아히야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37절 하). 아마도 아히야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히야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필시 백성들 중에 누군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야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 함락 때 패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울은 그 즉시로 백성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 보자"(38

절)라고 말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추려냈습니다. 사울은 먼저 백성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백성은 저쪽에 서고 자신과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한 이러한 결과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에게 이렇다 할 문제가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39절 상)까지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요나단에게는 조금의 죄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자신이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심보다는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뽑힌 것에 대해 심히 놀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43절 상)고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배가 고파서 지팡이 끝에 꿀을 조

금 찍어 먹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 배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은, 그가 제비뽑기에 대해 매우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라면 과연 사울처럼 제비뽑기에 대한 결과를 그렇게까지 신뢰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제비뽑기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런 미신과 같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비뽑기의 결과에 대해 100% 신뢰했으며 그 결과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모태신앙자와도 같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제비뽑기와 같은 결과를 매우 신뢰합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자들은 제비뽑기와 같은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자들은 얼마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요나단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사실상 그가 꿀을 짖어 먹을 때는 사울의 금식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릴 때 그는 홀로 적지에 들어가 열심히 적군의 목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죄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나이다"(43절 하). 분명히 자신의 무죄를 증언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 말도 없는 죄인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적어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께 충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도 감동하셨겠지만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다...”라고 말하면서 “...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
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
사하였음이니이다...”(45절)고 외쳤습니다. 이처
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합
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지라도 하나님
께서 아시는 일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는 우
리의 죄가 낱낱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삼상 14:46]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
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
니라

[삼상 14: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
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
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삼상 14:48]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
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습
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지 않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거지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훗날 다시 공격해 왔고 이 일로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악에 의해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악은 항상 악으로 존재합니다. 그 악이 보혈로 덮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악을 형성합니다. 블레셋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더 이상 블레셋이 안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기에 여전히 블레셋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악을 뽑아야 합니다. 악의 쓴 뿌리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괴롭히며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가족관계를 파괴합니다. 나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쓴 뿌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 12: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

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우며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비록 사울이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울의 왕권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사울이 전쟁을 시도했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 여러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아말렉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남쪽에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암몬’은 모압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돔’은 사해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모압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바의 왕들’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 야르묵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람족의 일파였습니다. ‘왕들’이라고 소개된 것은 이들이 부족끼리

연합하여 나라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했던 민족으로서 사울은 이들을 크게 진멸하였습니다.

[삼상 14: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삼상 14: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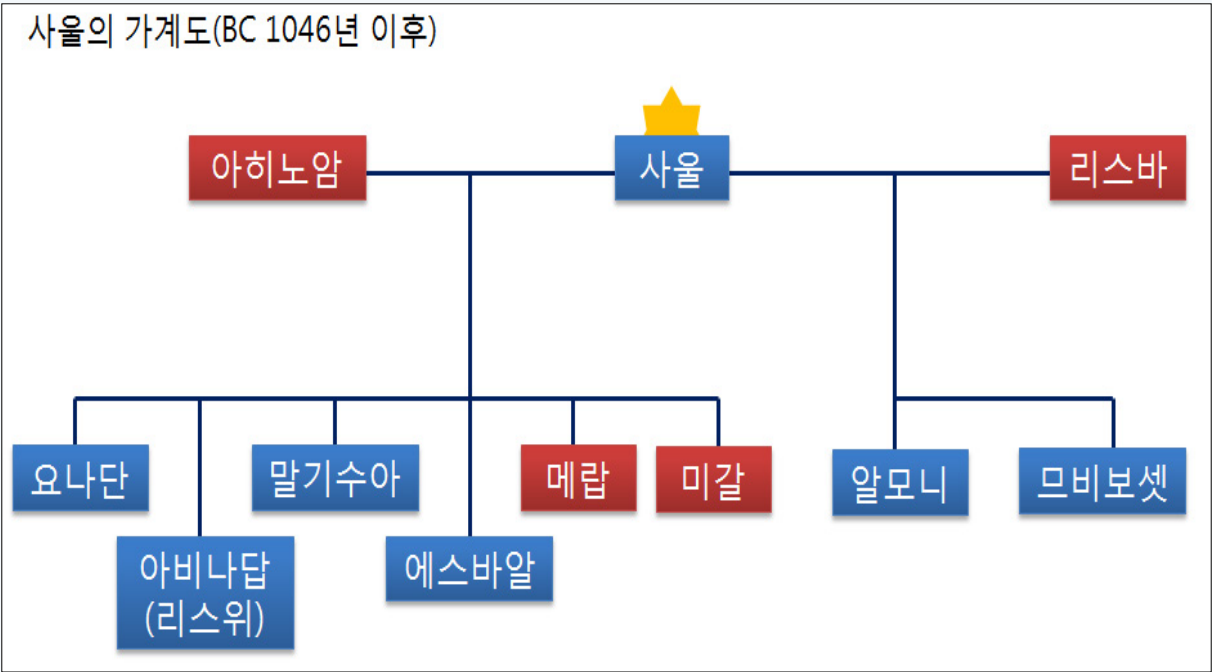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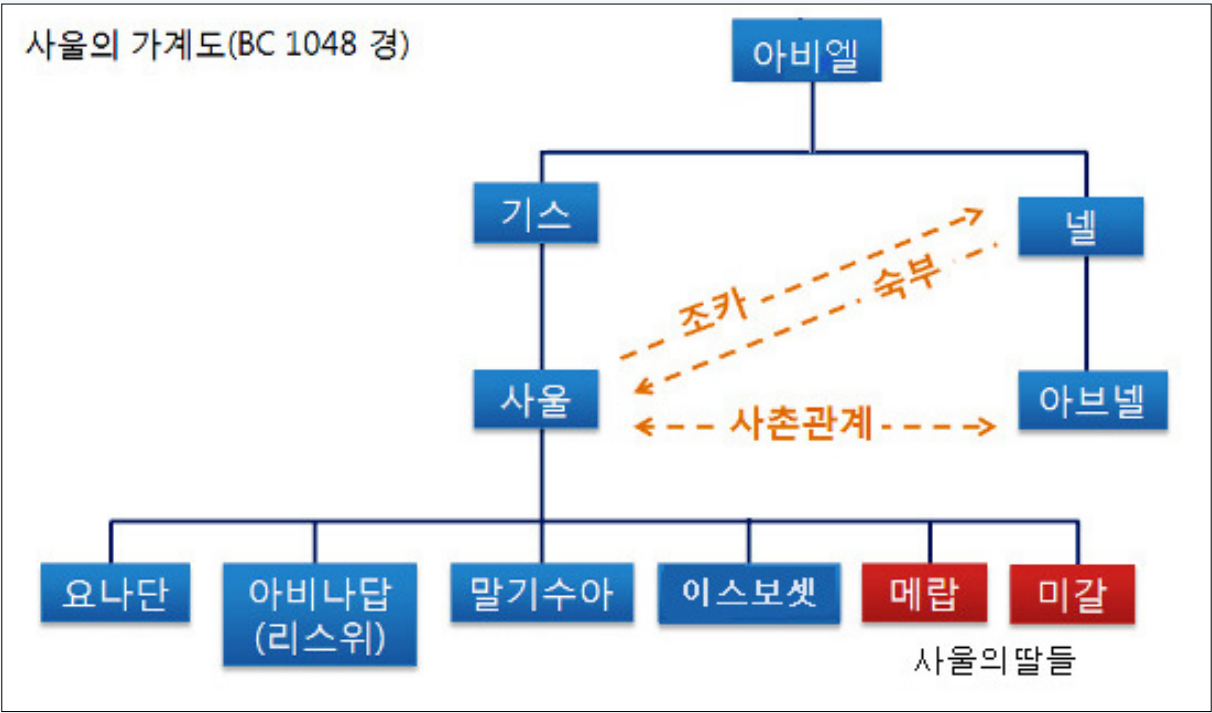
[삼상 14: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삼상 14: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맹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본문은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이며 두 딸은 메랍과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암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장은 아브넬인데 이는 사울 숙부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용맹한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입고 싶다고해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찢으니 여호와께서 모세
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
둔 후에 교만하여져서 '금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게 했습니
다.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
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
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
문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얇게 쳐서 오
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찢습니다(출 39:3).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오늘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
들어졌습니다.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띠는 에봇과 붙어있
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어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나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



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

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에 이스라엘 이름을 모두 새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

[삼상 15: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삼상 15: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삼상 15: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삼상 15: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만이라

[삼상 15: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동안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 므마스 전투 때에 헤어진 이후

로 못 만났으니 꽤 오랫동안 사무엘을 못 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일들에 사무엘도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외의 만남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믹마스 전투는 기원전 1048년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치렀던 전쟁이니 연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로 올랐기 때문에 만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때가 15세라고 가정한다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대략 기원전 1025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해가 기원전 1010년이기 때문입니다.

“[삼하 5:4] 다윗이 삼십 세에 위에 나아가서 사십년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전에도 사울을 찾

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매우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3절)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죽이되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2절 참조).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척이나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참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살고 있었던 유목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르비딴에 도착했을 때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잔인할 정도로까지 아말렉의 씨를 말려 버리시겠다고 걱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전쟁에 대해 기록하면서 매우 특이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군사를 소집할 때에 '유다 지파'의 수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전투와 아말렉 전투 때에 소집된 군사들에 대한 언급에 유다 지파를 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국이 완전히 통일된 왕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직까지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상 11: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더라” - 길르앗 전투

[삼상 15: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만이라 - 아말렉 전투

[삼상 15:6]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아말렉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겐 사람'에게 아말렉 중에서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을 아말렉으로부터 떠나라고 권했던 이유는 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우호적인 관

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는 겐 족속 사람들에게 함께 살기를 권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함께 했습니다.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간청을 못 이기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

니다. 모세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의 높은 신앙심과 경건심을 높이 평가하시어 저들과 함께하는 백성까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겐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잘 해 준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겐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겐 사람을 아말렉으로부터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속에서도 함께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말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겐 사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삼상 15:7]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삼상 15: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삼상 15: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
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
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겐 사람을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킨 다음에 즉시로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
다.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
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
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으며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짐승과
어린 양을 비롯하여 보기에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또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줄로만 생
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눈에 보기

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나의 행동을 돌아봅시다. 나의 선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삼상 15:10] 여호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삼상 15:11]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11절 상).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11절 하). 왜 사무엘은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심을 후회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이 직접 왕으로 세웠는데 하

나눔께서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사무엘의 마음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근심하였다는 것을 기록할 때에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는 '성내다' 또는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분노로 후끈 달아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무엘의 성품은 조용했습니다. 참을성도 강하고 온유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왜 사무엘이 그토록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사울을 권고했으나 전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울이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이 미워서 분노를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울 왕

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화를 푼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근심'의 모습을 보였듯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나함>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후회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한탄스러운 마음'을 동반하는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세상의 창조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한탄하사'란 단어가 '후회하다'란 단어와 같은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죽여 없앨 정도로 크신 것이었습니다.

“[창 6:6]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또한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의해 수십 억의 인류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수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의해 사울 왕은 순식간에 왕위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삼상 15: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삼상 15: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삼상 15: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전투 후에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길갈로 내려가기 이전에 먼저 갈멜에 이르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가지 아니하고 길갈로 간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며 사로잡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 당신은 여호

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13절)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14절). 사무엘은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짐승을 죽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울 왕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행하였는지 깨닫지 못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빠에게 "아빠는 너무 나빠!"라고 말한다면 왜 그런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 역시 사무엘의 꾸지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삼상 15: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삼상 15: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
라엘 왕을 삼으시고

[삼상 15: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삼상 15: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
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왜 사무엘이 자신을 꾸짖는지 가까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
다. 왜냐하면 사울이 잔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백성
들의 잘못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 백성이 당
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15절). 사
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
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죽이지 않은
것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
게 돌리고 거짓을 고하는 죄였는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백성이 짐승을 남겨 둔 것은 저들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거짓을 고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죄악된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19절) 죄를 범했냐고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탈취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음을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

가 불순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탐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그 순종에는 '탐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더라도 그 순종은 더러운 순종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해지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순종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몰살하라는 명령대로 아말렉 왕 '아각'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통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취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취하여 노예로 사용하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이 보인 순종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들이 온전치 못한 것이 있었다면 좋은 짐승을 탈취한 것입니다.

큰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살례

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병사들에게 짐승을 탈취하는 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행동을 싫어했으며 결국은 이 일로 인해 왕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삼상 15: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삼상 15: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

니

사울은 사무엘의 꾸지람을 기분 나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20절)라고 말하였습니다. '청종하다'란 <샤마>는 '순종하다'란 뜻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행동을 대변할 때에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무엘 역시 사울의 죄를 언급할 때에도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샤마>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언급할 때에도 그가 순종<샤마>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순종했다고 말하고 사무엘은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는 다른 내용의 '순종'으로 변했을까요?

이는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과 사무엘이 생각하는 '순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울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

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22절)라고 말하면서 "...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23절)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죄를 정죄하였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정도 행하였으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이 있었습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는 <메리>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반역' 또는 '반란'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성질이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반란이라도 일으킬 정도로 성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시네요.. 제 체면도 봐주셔야죠? 제가 누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요~!”라는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못된 성질을 찾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완고했습니다. '완고하다'란 단어 <파차르>는 '밀다', '강요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집이 매우 센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매우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집스러운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집스러운 성격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완고한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선지자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사

울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이 거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22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듣다'는 말은 <카샤브>인데 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쫓긋하게 세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매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보다 '제사'를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기름이 태워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보다 제사가 더 눈에 확 띄는 행동이며 듣는 것보다 기름이 태워지는 것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명예심이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쉽게 거만한 태도와 완고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하거나 완고한 태도는 모두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성질입니다.

[삼상 15: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 내가 범죄하였나이다..."(24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그 말을 듣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사울은 "...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24절)고 변명하였습니다. 사울의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백성의 말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청종'이라는 말은 <샤마>로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사무엘이 사용하였던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내가 백성들의 말을

순종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울은 백성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어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진정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의 말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면 결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도 빼앗기고 사장의 자리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요나단도 함께 죽음을 당하였듯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녀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삼상 15:25]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삼상 15: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삼상 15: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삼상 15: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삼상 15: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 지금 내 죄를 사하고..."(25절)라며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어찌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매달렸는지 그 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27절).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사무엘이 죄를 사하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수는 있을지언정 사울의 죄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죄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에게 죄의 용서함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무엘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삼하 1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쩌면 다윗의 죄는 밋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에게 범한 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밋세바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밋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에게 지은 죄의 값은 따로 치러야 했지만 다윗만큼 풍성한 복을 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도 잃게 되었으며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아내도 잃게 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찬란한 왕권도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울이 회개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몸과 영혼을 송두리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는 죄의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비록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 시간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해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삼상 15:30]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

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삼상 15: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
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삼상 15:32]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
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
났도다 하니라

[삼상 15:33]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
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
에서 아각을 찌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
다. 사울이 하도 간청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
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간청
이 아무리 간절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할 사
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케 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했기에 어쩔 수 없
이 사울과 동행을 했던 것이지 그런 이유가 없었
더라면 결코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32절)고 명하였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무엘에게 나아올 때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훨씬 다른 사람보다 자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각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33절). 그리고는 그를 찌어 찌개었습니다. '찌개다'라는 말은 <쇼사프>로서 이는 '여러 조각을 내다' 또는 '토막토막 끊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의 각을 뜯 때 행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어 찌개니라(33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아각을 마치 제물을 죽이듯 그렇게 아각을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악인을 찌어 찌개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더 이상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아말렉을 찌어 쪼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아말렉은 잡초처럼 자라나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있어서 '아각'입니까? 그 아각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필요하다면 쪼개십시오. 불에 태우십시오. 던져 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 어떠한 악도 허용지 마십시오.

“[살전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삼상 15:34]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삼상 15: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 그가 사

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35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을 자주 회상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날에 그는 사울에게 반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도와서 왕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에게 실망했던 마음들이 사울을 통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더욱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정으로는 또다시 기회를 봐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사울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살아날까 봐 스스로 억제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사울에 대한 모든 감정을 일시에 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과 뜻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

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다고 해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싫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겐 족속과 레갑 후손

겐 족속은 누구인가?

“[대상 2:55] 아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성경은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레갑 후손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겐 족속에 대해 보다 잘 이해를 하려면 '레갑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알 때 보다 명확해집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겐 족속 사람들이 '서기관 족속'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가리켜 겐 족속이라고까지 불리어졌습니다.

성경은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해 구체적

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언급된 그들은 주로 '황무지'에 산다는 것입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또한 그들은 농경생활보다는 유목생활을 했으며 주로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삿 4: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거주하길 원했습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유목하는 백성으로 남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히 저들이 함께 하길 원하였습니다.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간청을 못 이기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인가?

레갑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의 신앙심과 경건심을 인정 받았습니다.

“[렘 35: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

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렘 35:19]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
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자손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 이러한 그들의 순종심을 칭찬하시고 영원토
록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시종드는 영예로운 자손
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
아와 시종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 이스라
엘 민족들 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내린 명령
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는데 그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렘 35:6]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

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렘 35:7]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렘 35: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렘 35:9]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렘 35:10]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될 때 취하게 되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지만 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경우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도 나실인처럼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레갑자손처럼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생활가운데 어느 정도 포도주를 취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서구 목회자들은 식사 때나 파티 때 가벼운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제사장의 규범과 나실인의 규범이 다른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사뭇 다른 규범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서 장막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소유 개념입니다. 이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경생활을 하지 않고서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목생활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러한 무소유개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갑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조 요나답이 남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 드리지 않았으며 오직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렘 35: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아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예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비록 남편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

[삼상 16: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삼상 16:2]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삼상 16: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삼상 16:4]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삼상 16:5]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무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젖어있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슬픔이 주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버려야 합니다. 슬픔을 박차고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인생에도 사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새로운 주의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주의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울의 일로 마냥 슬퍼만 하고 있으면 더 이상의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을 깨우시고 "...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1절)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두려워했습니다. "...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라고 말하면서 "...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2절)라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았으며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찢어 찢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어떠한 악도 허락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죽일까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그가 '사울'로 인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슬퍼할 때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 슬퍼하면 자녀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 슬퍼하면 남편만 생각하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영원토록 '사울'에게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만났으므로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돕기 위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스스로 지혜롭게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로 인해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 우리의 지혜 또한 없어집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힘'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지 못한 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일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그런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문제를 놓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붙잡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러한 붙잡힘에 의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사울'이라는 문제에 대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돼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지혜를 회복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담대함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뿔을 들었습니다. 그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뿔에 기름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을 지우십시오. 마음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삼상 16: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
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
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볼
때에 "...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6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
나님은 즉시로 사무엘에게 "...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마땅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눈으

로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모양은 선지자이나 실제로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울의 외모를 중시 여겼습니다.

“[삼상 10:23]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삼상 10: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라아>인데 이는 눈으로 사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그의 눈<아인>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모'라는 말은 <아인>인데 이는 사람의 '눈'을 말합니

다. 사무엘은 사람의 육체적인 눈으로만 엘리압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바라볼 때에 사울의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였고 덩치가 매우 컸으며 건장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미남자였기에 왕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압을 볼 때에 그의 용모가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레브>인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외모'를 보게 되지만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니 우리 또한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모'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좋은 사람은 외모 역시 좋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상 16: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삼상 16: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삼상 16: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삼상 16: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삼상 16: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

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었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 모두 지나가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엘리압이 지나갈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난 후에 사무엘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는 행위를 버렸습니다. 또한 혼자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 사무엘 혼자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 혼자서 면접관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둘

이서 면접관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라보았더니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스스로 왕을 찾았다면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라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목동 일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12절).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매우 건장하여 싸움을 잘하게 생겼지만 다윗은 예쁜 소년과 같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다윗은 결코 사무엘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예쁜 소년과 같다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을 마음의 눈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기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소년 같은 다윗이 아주 멋진 왕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용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붉었다'라고 했습니다. '붉다'는 것은 그의 피부를 말합니다. 야곱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놓친 에서 역시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의 피부도 붉고 다윗의 피부도 붉은데 어찌하여 유독 다윗의 피부는 붉어서 좋고 에서의 피부는 붉어서 안 좋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자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시는 자는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재목이었기에 붉은 피부라서 좋은 것이지만 에서는 야곱의 축복을 방해하는 인물이기에 붉은 피부라서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모는 눈이 빼어났습니다. '눈'은 사람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매우 깨끗하고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빼어나다'는 <아페>로서 '아름다운'의 뜻 외에 '선하다', '맑다', '깨끗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단순히 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눈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눈이 선하고 깨끗하여서 좋게 보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용모는 얼굴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란 말은 <토브>인데 이는 '좋더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얼굴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예뻐 보이는 얼굴은 당연히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삼상 16: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만일 당신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받는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는 '성령세례'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서약한 것이고 '물세례'는 결혼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결혼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을 때 '성령충만'함은 부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것은 아니듯이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물세례'만으로는 성령 충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 외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배우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늘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삼상 16:14]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라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와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비록 구약시대이지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어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했던 성령을 다시 거둬가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함께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시고 났더니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악령'은 '악한 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라>입니다. '라'라는 단어

는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는 '영'이란 뜻인데 '성령'님을 가리킬 때에도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악령'은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는 완전히 다른 '영'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떠나게 될 때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악한 영'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 심령을 공격합니다.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여지없이 악한 영은 틈새를 뚫고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항상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그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잘 동행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로 감이니라”

비록 구약시대였지만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악령이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에 의해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뇌하다'라는 말은 <바아트>인데 이는 '엄습하다', '습격하다', '~를 덮치다', '두렵게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그를 엄습하였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느낌으로 떤 것이 아닙니다. 악령 때문에 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악령에 의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삼상 16: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삼상 16:16]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삼상 16:17]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삼상 16: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삼상 16:19]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 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삼상 16:20]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삼상 16: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삼상 16:22]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삼상 16: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
나더라

사울의 두려움이 심하자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 왕의 번뇌를 치료하
길 간청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
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17절)고 명하였습
니다.

사울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기회는 '다윗'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악령
으로 인해 번뇌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
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마저 죽이기로 작
정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 사울
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21절).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는 그가 수금 "...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18절)였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용맹함을 말하고 '무용'은 전쟁에 능한 전사를 뜻합니다. '구변이 있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은 어찌나 다윗을 사랑하였는지 그를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다윗의 수금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던지 악령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찬양이 다 이런 다윗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찬양을 많이 불렀겠지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는 모두 찬양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

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수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잇게 해 주는 악기였으며 그 수금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금 소리는 영혼을 맑게 해 줄 수 있었으며 사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악령을 제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군가 내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온 '기회'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4단계 공격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귀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귀신을 가리켜 악한 영 더럽고 추한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협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귀신의 세계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습니다.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도 그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교회가 마귀의 세계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질서적이지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공격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귀신은 가장 먼저 '의심의 영'을 보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아주 악하고 보잘것없는 공격 같지만 가장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갖가지 되를 짓게 합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영'은 즉시로 '비판의 영'을 불러 드립니다. '비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질투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질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움의 영'은 상대방을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절망의 영'이 스며 들어오고 맙니다. '절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은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 때 우리 안으로 또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살의 영'이 들어와 사람을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귀신의 이러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을 알아야 하며 막아야 합니다. 귀신의 공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단계로 이뤄졌음을 아는 것은 귀신의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공격단계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귀신의 첫번째 전략은 '틈'입니다. 귀신은 우리로부터 '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귀신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귀신은 죄와 함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의 공격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의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심은 귀신이 주는 첫번째 공격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의 첫번째 공격단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틈'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 침투단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혼자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격단계에서는 혼자서 회개하면 되지만 침투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적치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선포문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 선포문을 읽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3. 거주단계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 온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주단계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자신이 귀신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
니다. 음란의 영이 거주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활
동할 때에 갖가지 음란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
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중독의 영이 거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한 상태에 놓인 사
람은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여간 해서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내적치유

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단계의 귀신을 내 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는 거주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앉아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성질만 돋구는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사역자에 의해 비록 그 삶 안의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떠난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떠난 귀신이 더 큰 귀신 떼와 함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4. 묶임단계

우리 안에 거주한 귀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거나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묶임단계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뿐만 아니라 죄 인식마저 못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 모양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귀신을 쫓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 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성령님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은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

[삼상 17:1]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치매

[삼상 17: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삼상 17:3]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

난 므다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금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2년째 되던 해(기원전 1048년)에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까스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의 잔류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다시금 군사를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살전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소고’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원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대략 2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고’는 유다에 속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소

고'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지역을 점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가'는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스담밈'은 소고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서 대략 2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골짜기에 물이 있었지만 전쟁 당시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물이 말랐던 여름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상 17:4]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삼상 17: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삼상 17:6]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삼상 17:7]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자를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 싸움을 돋우는 자..."(4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싸움을 돋우는 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두 군대 사이에 개입하여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 선봉장으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렇게 선봉장으로 세운 것은 그가 매우 강력한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하나인데 이 가드에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인데 아마도 골리앗은 이 아낙 족속의 후예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규빗의 길이를 45cm로 보고 한 뼘을 약 13cm 정도로 본다면 골리앗의 키는 대략 280cm 정도입니다. 그의 몸에는 '어린갑'이 입혀졌습니다. '어린갑'은 천 위에 비늘 모양의 철판 조각을 붙여서 만든 갑옷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갑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

겔은 대략 11.5g이므로, 그가 입었던 어린갑의 무게는 대략 57.5kg입니다. 또한 그가 지니고 있었던 창자루인 '베틀채'는 멀리 던질 수 있도록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날의 무게가 '철 육백 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철 600 세겔'의 무게는 대략 7kg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사용한 창이 얼마나 크고 육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상 17: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삼상 17:9]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삼상 17: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삼상 17: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10절).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를 대하고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 골리앗을 통해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삼상 17: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삼상 17:13]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삼은 삼마며

[삼상 17:14] 다윗은 말째라 장성한 삼 인은 사울을 좇았고

[삼상 17:15]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

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삼상 17: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삼상 17:17]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볍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삼상 17:18]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삼상 17:19]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새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12절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들이 8명이고 그 중의 막내가 다윗이었으니 적어도 60세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경이 그를 가리켜 '당시 사람 중에'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 이새는 상당히 늙은 사람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성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새가 이렇듯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니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요인에 의해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나이 늙은 사람들이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아진 고연령 사람들로 인해 해야 할 일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아비 이새도 딱히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삶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전쟁터에 나간 자녀들에게 음식을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이새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이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이새에게 할 일을 잔뜩 주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으로 인해 잠시도 한눈팔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는 인생을 바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둑알을 굴릴지라도 그런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며 무료한 인생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나이 늙은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이 늙은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방에서 TV나 보고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젊을 때는 자녀를 위해 일했지만 자식들이 장성하였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은퇴시켰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

신 새로운 타이어를 달고서 신나게 달리십시오.
전 세계를 향해 달리십시오. 할 일이 참으로 많음
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삼상 17:20]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
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삼상 17: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삼상 17:22]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
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삼상 17:23]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
윗이 들으니라

[삼상 17:2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
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삼상 17:25]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
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
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
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삼상 17:26]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

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삼상 17:27]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 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울의 병기 든 소년으로 임명되었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나이가 아직 전쟁에 참여할만한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당시에 20세가 아직 되지 않았나 봅니다.

“[민 1: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다윗은 아비 이새의 심부름을 위해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 전쟁을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들을 만나 문
안을 하였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이 그런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감정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도 그
리 좋은 감정이 아닌데 골리앗이란 자가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개심이 치
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사들
이 골리앗이 무서워 너도나도 앞다투어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더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도전장을 던졌
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
앗을 죽인 자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말이었습니
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 많은 재물
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
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25절 하)한다는
약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

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일 다윗이 속으로만 뜻을 생각했다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썰기를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실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다윗이라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일 뿐 다윗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골리앗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거나 내가 골리앗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골리앗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보다는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있다고 해서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분노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노를 최대한 폭발하도록 스스로를 유도시킨 것입니다. 그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침저녁으로 간간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했지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는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골리앗이 했던 모욕스러운 말

을 들은 다윗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도 없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상급도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이 약속한 상급이 다윗에게는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26절 중)며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해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삼상 17:28]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화를 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라고 말하면서 "...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꾸짖은 이유는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28절 하).

엘리압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교만하지 않으며 완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엘리압은 몰랐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우리 역시 엘리압과 같은 말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형제를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은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정죄합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해 보십시오. 당신이 판단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엘리압보다 다윗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엘리압은 스스로 다윗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엘리압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압이 사용했던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은 사탄의 교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마

음이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바>란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지만 엘리압이 사용한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돈>입니다. 이는 멸망을 초래하는 교만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건방진 태도'나 '거만한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엘리압은 다윗의 행동을 건방진 태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양이나 돌볼 것이지 쪼그만 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또한 엘리압이 말한 '완악함'은 <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악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형이 동생을 골탕 먹이는 악한 행동이나 사탕을 훔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작은 악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악함은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거대한 사탄의 악과는 다른 악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으로서 어쩌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거만하고 다소 황당스러워 보이

는 그의 행위에 대해 '이 완악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설치는 거냐!'라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다 보니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곤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단순히 양이나 돌보는 목동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자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안다고 판단하고 안다고 정죄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 "완악하다"고 질책했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악한 놈아!"라고 꾸짖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상 17:29]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삼상 17:30]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엘리압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폭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속에만 자리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 삶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큰형 엘리압의 꾸지람에도 굴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 없음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라고 형 엘리압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형님이 제게 교만하다 완악하다라고 말하실 이유가 없질 않습니까!”라는 단호한 어조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큰형 엘리압에게 너무 강경한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그의 믿음이 꺼져 버릴 수 있었기에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큰형이지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자신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달라는 뜻에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29절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것은 한마디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보다 깊은 의미를 찾자면,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형님, 제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골리앗을 쳐 죽이려는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라는 뜻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꽤 많이 차이나는 큰형이었지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골리앗을 죽일 마음만 굳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다윗의 굳은 신념. 이러한 다윗의 신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삼상 17:31]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삼상 17:32]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삼상 17: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Alexander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도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네가 골리앗을 죽인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나?"라고 다윗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32절 상).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다윗의 말은 마치 선지자의 말 같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선지자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히 채워질 때에 우리 입에서도 그런 선지자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의심에 찬 말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나약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32절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33

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의 형처럼 다윗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곱상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삼상 16:18 참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울의 눈에는 그저 수금을 잘 타는 곱상스럽게 생긴 소년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삼상 17: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삼상 17: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삼상 17: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삼상 17:37]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삼상 17:38]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삼상 17: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삼상 17: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킨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울 왕에게 자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 떼를 공격하는 사자나 곰을 죽였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의 그런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면 앎수록 다윗은 더욱더

자신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37절)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어찌나 다윗의 뜻이 강경한지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뜻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 가라..."(37절 하).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위해 나뭇대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자기 낚투구를 머리에 씌워주었으며 자기 갑옷을 입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험적으로 움직여보더니만 이내 군복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39절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내려가 그곳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왔습니다. 다윗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시냇가에서 주운 돌 다섯 개와 그것을 사용하는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말도 안 되는 다윗의 행위

에 황당스러워하는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안쓰럽다 못해 자살극을 시도하려는 다윗의 행위는 마치 미친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무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매와 물매돌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의 비밀 병기는 평소에도 늘 사용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만 특별히 사용된 비밀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밀 병기였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사용되었던 무기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비밀 병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비밀 병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인생에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갑옷은 다윗의 몸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몸을 가볍게 해 주셨

습니다.

[삼상 17:41]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삼상 17: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삼상 17: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삼상 17:44]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삼상 17: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삼상 17: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삼상 17: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군사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군사라면 군복을 입고 있었을 테고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 군사라면 칼이나 창이라도 들고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에게 나아오는 다윗에게는 고작 해야 막대기와 물매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주머니 속에 돌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양들을 치기 위해 필요한 막대기를 가지고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한 비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은 젊고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표현은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의 표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삼상 16: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골리앗은 한참 동안 다윗을 비웃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는 다윗 같은 자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온 것에 모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모욕은 다윗을 모든 군사의 대표로 보낸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43절 하).

이러한 골리앗의 저주를 들은 다윗은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강력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45절 참조)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47절)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분노가 폭발하여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도망을 쳤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계산하였다는 것이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알게 합니다.

드디어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려 접근했습니다. 골

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자 다윗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서 오히려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돌을 빼어 들고서 물매로 그 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물매돌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단순히 돌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물매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골리앗이 물매돌에 맞아 쓰러지자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꺼내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물매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다윗은 이미 평소에 물매돌을 가지고서 거대한 짐승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런 실제 경험들이 결국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물매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물매돌을 많이 던졌다면 거대한 골리앗에게도 물매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물매돌을 던지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돌로 짐승을 쓰러

뜨렸기 때문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짐승보다 더 컸기 때문에 물매돌 던지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었던 것입니다.

[삼상 17: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삼상 17:52] 이스라엘와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삼상 17: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삼상 17:54]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치켜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군사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쫓았으면 블레셋의 다섯 성읍에 속하는 '가드'와 '에글론'까지 갔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큰 승리를 거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상 17:55]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뉘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다 하매

[삼상 17:56]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삼상 17:5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삼상 17:58]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며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은 요나단에 의해 승리를 거뒀지만 두 번째 전쟁은 다윗에 의해 승리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장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아브넬을 통해 어떤 집안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수금 타는 것으로 인해 그의 심적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다윗을 끔찍이 좋아했기 때문에 '병기 드는 소년'으로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가겠다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갑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매우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기쁨이 되는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 같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사울 왕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시켜 상세하게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축복입니다.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존재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

려 했던 사울은 그의 사악한 마음과 함께 죽음과도 가까워집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위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가까이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다윗이 가져다주는 화목을 누렸더라면 아마도 그의 삶은 더욱 풍성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굳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시기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다윗은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당신을 도우러 왔지 당신을 죽이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

[삼상 18: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삼상 18: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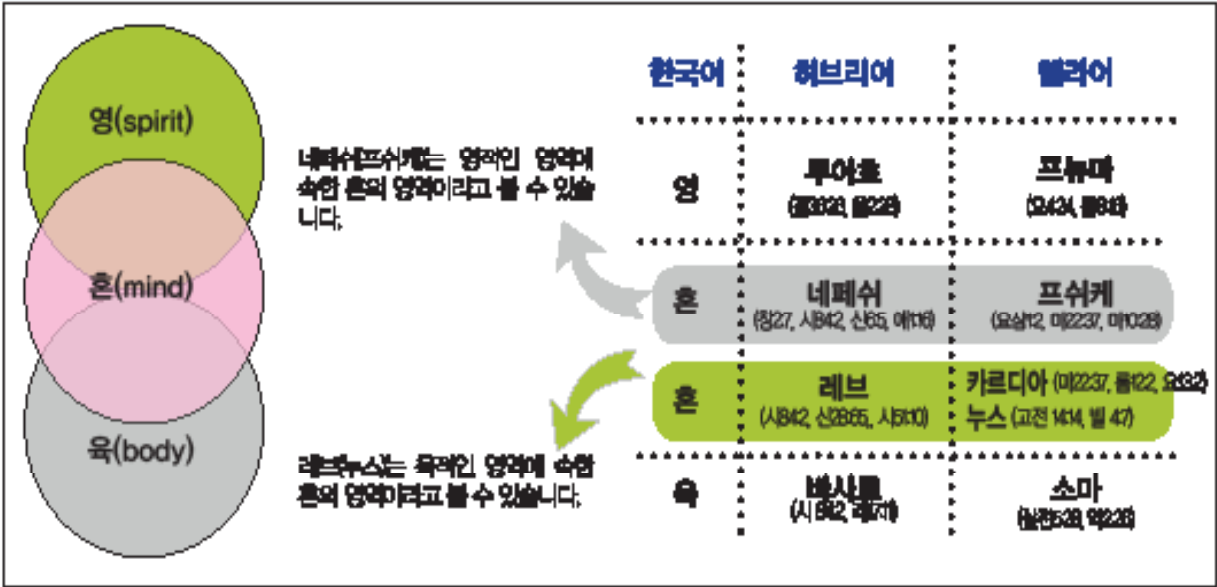
[삼상 18: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삼상 18:4]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연락하다라는 단어는 <카쇼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매다', '묶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매우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매우 깊게 묶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교통하듯이 요

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더불어 교통한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의 교통함에 있어서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혼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친구가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도와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친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언약까지 맺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겹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삼상 18:5]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삼상 18: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삼상 18:7]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지라

[삼상 18:8]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삼상 18: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에 의해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군대의 장이 됨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찌나 다윗의

인기가 충만했던지 여인들이 "...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러한 다윗의 인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8절)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날 이후로 그는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다'란 말은 <아완>인데 이 단어는 눈이란 뜻의 <아인>에서 파생된 말로 '의심에 가득찬 시선으로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윗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다윗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일찍 깨닫고서 좀 더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그가 왕이 될 때까지의 삶은 그렇게까지 힘든 고난의 시간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만 소극적인 자세로 사울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울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부를 때 수금을 타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나아가 수금을 탔어야 했습니다. 그가 부를 때에만 식사를 함께 하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삶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아랫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윗사람에게도 많은 시간을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윗사람의 말에만 순종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챙기며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야 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열심히는 했으나 사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열심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군대의 장으로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울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삼상 18:10]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삼상 18: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삼상 18: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삼상 18: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삼상 18:14]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

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라

[삼상 18:15]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삼상 18: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다라

사울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악신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의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게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요?"라며 악한 영이 자신 속에 들어온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초대받을 때 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틈'이 곧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틈'이 보일 때 "저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법적인 방문이지만 저들이 볼 때는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뻔뻔스럽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악한 영이 시킨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악신의 명령을 받고서 갑자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날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던졌습니다.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11절)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비정상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1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까요? 당신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두려워하였던 체험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하나님을 압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자 또한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영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영으로 하여금 당신을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상 18:17]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만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삼상 18: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삼상 18: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교를 꾸몄습니다. 자신의 딸 메랍을 준다는 구실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서 "...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17절)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폐백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울은 폐백을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용맹을 내어 싸우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18절)라고 대답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꺼려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메랍을 사랑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아내인 경우에는 서둘러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폐백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미적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만 딸 메랍을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내어 주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꺼려한 것을 알고서 더 이상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줘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계교를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계교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교는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사기 치는 것은 모두 계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곤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계획은 계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교를 꾸미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순전하시기 때문에 계교를 부리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울은 계교를 부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직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계교를 부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삼상 18: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삼상 18: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삼상 18:22]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삼상 18: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삼상 18: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삼상 18:25]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족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삼상 18: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삼상 18:27]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큰 딸 메랍 때 못다 한 계교를 다시금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미갈'을 통해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첫번째 딸 메랍은 다윗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사위가 되도록 종용하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첫번째 딸 메랍을 준다고 했을 때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신하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갖은 아버지의 말을 했습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22절). 그러면서 그들은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족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25절)고 사울 왕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금은보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갈을 사랑했기에 더 이상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숨에 내려가 블레셋 사

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드렸습니다. '양피'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말하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를 표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는 민족이어서 할례받지 못한 민족을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쟁 때 그렇게 양피를 잘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이백 개나 얻게 되었습니다.

[삼상 18: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삼상 18: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삼상 18:3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면 결코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악한 영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없으며 그 어떠한 향기도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을 때에 세상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를 두렵게 만들어야 할 자가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마귀를 두려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마귀가 절대로 당

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야 하는데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

[삼상 19:1]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삼상 19:2]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삼상 19:3]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삼상 19:4]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 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삼상 19: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삼상 19: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

리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하들까지 모두 알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신하들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사울처럼 악한 일에 자신과 친한 사람을 동참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처럼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포로로 잡은 상태에서 그 사람 주변 사람까지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악한 영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케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던지라 악한 영이 요나단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포장하여 좋은 말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열매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무엇을 했으며 사울 왕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이라고 말하면서 "...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5절)라고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그의 심령에 자리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6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말은 사울의 심령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나단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었고 다윗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실'과 '사랑'의 말은 악한 영을 충

분히 잠재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진실'과 '사랑'의 말이 일순간적으로 악한 영을 잠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울의 심령에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는 '진실'이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스며들어올 때에 악한 영은 반응을 합니다. 기름이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듯이 악한 영의 세력이 허물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매우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지만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인해 단단한 결속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딱딱하게 굳어 버린 쿠키에 기름을 바르면 쿠키가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부음을 통해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짐들이 부러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에'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 짐을 뜻합니다.

”[사 10:27]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삼상 19: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삼상 19:8]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삼상 19:9]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삼상 19: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삼상 19:11]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삼상 19:12]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내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잠시 잠잠해진 악한 영들은 다시금 일어나 사울을 깨운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사울의 심령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이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9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내재하고 있던 악한 영이 활동을 재개하자 이내 곧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달아나자 사울은 신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리워 피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사랑했던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가 악

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남편의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부모의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빠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미워서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악한 영을 이용하여 우리 마음을 짓밟으며 가정을 파괴합니다. 누구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사울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잃을 게 많아서 잃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영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 이유는 뭔가 있기 때문

입니다. 없는 사람은 욕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은 욕심도 있게 됩니다.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의 대가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소유'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무소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는 욕심을 비우게 하지만 '소유'는 욕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소유'라고 해서 거지로 살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있기에 '무소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고 거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이 참으로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있으면 받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

집니다. 바로 그때를 가리켜 '무소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야만 했지만 그에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동굴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짐승과 벗하며 살아야 했지만 끝까지 '무소유' 개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많은 찬송 중에 뛰어난 찬송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으며 '무소유' 개념으로 살았는지 알게 해 줍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다윗에게는 '주님'뿐이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한 것은 "...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란 뜻이며 "내가 지금의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있습니까? '무소유' 개념이 당신 심령에 정립되었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더 가질려고 '욕심' 부리다 악한 영의 밥이 되질 않았습니까?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싸 안으려다 악한 영을 감싸 안고 말았지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직 다윗처럼 사십시오.

[삼상 19:13]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삼상 19:14]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삼상 19:15]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삼상 19:16]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
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삼상 19: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

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남편 다윗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케 한 뒤에 침상에 우상을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사울은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17절 상)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면서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17절 하)는 말로 위협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살리려 했습니다. 사위인 다윗이나 남편인 다윗 모두는 살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사위로서 소중한 사람이지만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은 남편으로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감으로 인해 비록 사위이지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
마저도 죽이게 합니다.

[삼상 19:18]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뿔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다윗은 사무엘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설마하니 사무엘에게까지 와서 자신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 사무엘에게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이유도 있지만 그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의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로 오히려 사울의 핍박 가운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에 오히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영성훈련을 할 때에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잡고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사무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마’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며 그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나봇’은 라마 근처에 있는 곳으로서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삼상 19:19]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삼상 19: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삼상 19:21]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고로 사울이 세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삼상 19:22]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삼상 19:23]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삼상 19:24]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라마 나욧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 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적어도 사울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을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악신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은 갈 때까지 간 모습입니다. 자식의 친구임에도 죽이려 했던 그가 자식의 남편임에도 죽이려 했고 이제는 선지자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악신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의지대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로봇이 리모컨트루에 의해 조정 받듯이 악한 영에 의해 조정 받는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귀신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힘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악한 영을 통해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멸망의 길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라마 나뭇에 갔을 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뭇에 거하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뭇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충만히 임하고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심령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언하다'란 말은 <나비>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의

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들에게 생기가 임하여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찌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언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나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언하다'라는 의미가 '대언하다'라는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모두 사무엘에게만 가면 성령에 취하여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울 역시 나뭇에 도착했을 때 성령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경

험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선지자 그룹을 만났을 때 예언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선지자들이 거하는 나뭇에 당도하자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상 10: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 같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악하게 되었던 것은 '악신'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그로부터 쫓김을 받게 된다면 그는 다시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님과 악한 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악한 영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세력이 강화될 때 성령 충

만함은 약화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
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
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니 사울 안에
내재하고 있었던 악한 영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
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그
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
는 온전히 성령에 취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
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사울

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하루 종일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겹옷만 벗었습니다. "... 그가 또 그 옷을 벗고..."(24절 상)에 나오는 '옷'은 겹옷을 의미하는 <베게드>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완전히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24절 중). 그가 벌거벗은 것은 술에 취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었지만 지금 사울은 성령에 취해 벌거벗은 것입니다. 사울이 벌거벗었다고 해서 마치 술 취할 때 나타나는 고약한 버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신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선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라는 신분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다윗을 죽

여야 하는 그의 세상적인 마음이 사라졌음을 뜻하며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왕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처럼 입신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세상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황홀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맛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

[삼상 20:1]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삼상 20: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삼상 20:3]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삼상 20: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쳤던 다윗이 이제는 요나단에게 온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으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다윗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느꼈던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 이니라"(3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온 것은 요나단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양들을 쳤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과 최선이 담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사망의 그늘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사울의 위협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곰과 사자의 습격을 받았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위협

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당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위협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 중에서 사울의 위협이 그토록 다윗을 두렵게 했던 것은 사울의 위협은 피할 곳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울의 추적을 당하곤 합니다. 땔래야 땔 수 없는 추적이 있습니다. 숨을 수 없는 추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추적이 있습니다. 눈조차 감을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추적은 우리의 숨통을 죄어 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때는 그가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생명의 위협이 없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의 시간이 닥쳐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사가 된 이후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권사가 된 이후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에 처절할 정도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을 '다윗'처럼 키우시려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머잖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머잖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4절)고 위로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위로의 말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그의 형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사람도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마저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사람이라곤 오직 요나단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서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비록 그 말 때문에 당신의 삶에 질서가 없어지고 당신의 재물이 손해를 본 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은 그 사람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행동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상 20: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삼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삼상 20:6]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삼상 20:7]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삼상 20:8]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삼상 20:9]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삼상 20: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삼상 20: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은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로하며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내일이 월삭 날인데 그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삼상 20: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 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부친을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삼상 20:13]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삼상 20:14]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삼상 20: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삼상 20: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삼상 20: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은 다윗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엄마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

들을 치실지어다...(16절)라고 선포하였던 것은 그만큼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이라 함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멸망할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비록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이나 요나단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떻게 잘못을 행하였고 그 일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눈을 통해서 그는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혈육과 육정에 의해 살아 갑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에 의해 맺어진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객관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혈육과 육정에 의한 관계가 아닌 보혈로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객관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삼상 20:18]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삼상 20:19]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삼상 20:20] 내가 과녁을 쏘려 함 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삼상 20:21]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삼상 20:22]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삼상 20:23]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에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화살을 쏘아 화살 쭉는 아이에게 "...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22절)라고 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급히 도망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21절)라고 말하여서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음을 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의 이러한 도움에 대해 매우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로서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죽여야 하는 쪽에 서야 했을 테지만 오히려 다윗을 이처럼 최선으로 도와주니 다윗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위해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펴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족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딤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삼상 20:24]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삼상 20:25]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삼상 20:26]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삼상 20:27] 이튿날 곧 달의 제이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삼상 20: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삼상 20:29]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삼상 20:30]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삼상 20:31]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월삭 행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음에 대해 사울이 궁금해했습니다. 첫날에는 다윗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26절)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다윗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빼먹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날도 참석하지 않음을 보고 사울이

화를 냅니다. 이는 다윗이 일부러 월삭 행사에 참여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여 요나단에게 물었더니 요나단은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는 까닭을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버럭 냈던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불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인데 오히려 아들은 다윗을 돕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30절)라고 꾸짖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말은 그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매우 극심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 화가 났던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내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려줄 나라를 가로챌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31절)고 자신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어찌 아비된 자가 자식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는 악령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지 결코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악령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 그토록 포악해지고 교활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못된 성격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은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악한 영이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단정 짓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악해서 악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악한 영에 의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상 20:32]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삼상 20:33]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줄 알고

[삼상 20:34]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이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매우 심하게 다 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다윗'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사울은 단창을 들어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창을 들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악령은 사울로 하여금 자식까지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화가 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몹쓸 짓을 행하곤 합니다.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하

지만 때때로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줄 알고서 심히 슬퍼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 어찌나 슬퍼했는지 월삭 절기 행사 이틀째에는 아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월삭 행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배설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매우 슬픈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친족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형제와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삼상 20:35]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삼상 20:36]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삼상 20:37]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삼상 20:38]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삼상 20:39]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삼상 20:40]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삼상 20: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삼상 20: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
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
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요나단은 작은 아이와 함께 들에 나갔습니다. 이
미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활을 쏘아서 사울 왕의 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찾는
아이에게 "...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37
절)고 외쳐 말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뜻이었
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의도를 알게 한 후에 요나단은 마
지막으로 다윗을 만났습니다. 작은 아이를 먼저

성으로 돌려보낸 후에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슬피 울었겠지만 무엇보다 사울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다윗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던 것입니다.

절기제사의 종류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한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한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레위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번제의 형태였습니다.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5절). 고운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다(7절).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드려진 소제와 전제는 화제와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저녁으

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안식일에 대한 제사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기름섞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

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 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

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력의 시작은 1월이고 민간력의 시작은 7월로 다를 뿐입니다. 이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 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려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힌 전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양(lamb)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힌의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월삭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다”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민 28:16]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매일드려지는 제사, 안식일의 제사, 월삭
의 제사 외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를 드리도
록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순절(맥추절, 칠칠절)
과 초막절의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
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싶
어하십니다.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 이는 종교
력의 첫 달인 아빉월에 이뤄졌습니다. 양력으로 계
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의 기
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

다(출 12장 참조).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장자가 구원받았던 그 날 저녁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출애굽하여 광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 12: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 12: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출 12: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출 12:34]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곧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

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식때 드리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 28:20] 그 소제로는 고

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무교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어 곧바로 시작되는 무교절에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할 특별한 제사를 정례화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단

번에 얻은 구원을 기념한다면, 무교절 제사는 구원 받은 백성들이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별의 제사입니다.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매일 화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매일 드려진 번제물은 월삭의 제물 규례와 동일한 규모였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두 마리, 수양 한 마리, 일 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선별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번제물의 등급에 비례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3/10 에바, 수양 한 마리에는 2/10 에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각각 1/10 에바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소제와 전제로 함께 첨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기본적인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7

일 동안 매일 추가로 누적되어 드러진 풍성한 헌신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의 첫날(1월 15일)과 마지막 제칠
일(1월 21일)을 성회로 모이게 하셨고, 아무 노동
도 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
와 생업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
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온전한 몰입을 요
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계
획에 빼앗겨 있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직 주님만
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영적 안식을 청하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무교절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는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유
월절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의 명령처럼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
의 요소를 제거하며 하나님께 매일 온전한 예배자
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실절 제사(Offering of Firstfruits)

“[레 23:10]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 23: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 이튿날에 첫 열매를 봉헌하는 특별한 초실절 요제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반드시 한 번의 정기 안식일이 겹치게 되는데, 그 안식일 당일에는 평소보다 두 배의 안식일 제물이 상번제에 누적되어 드려졌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제사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 그해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제사장

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초실절 요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전까지 백성들은 새 곡식을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첫 열매를 구별하여 봉헌함으로써, 대지에서 얻은 모든 수확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철저한 우선 순위의 제사였습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도다”

이 초실절 제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경이로운 구속사적 진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에 무덤에 머무시며 참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초실절 요제가 드려지던 바로 그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무교절 중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졌던 초실절 요제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초실절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완벽하게 예표한 사건입니다. 성도는 이 초실절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덤의 안식과 사망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 된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며,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민 28: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됩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곱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 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를 새롭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 번제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은 번제물의 등급에 따라 비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절기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설명하였습니다.

번제물	소 제	전 제
수송아지	고운 가루 3/10 에바	포도주 1/2 힌
수 양	고운 가루 2/10 에바	포도주 1/3 힌
어 린 양	고운 가루 1/10 에바	포도주 1/4 힌

나팔절(7월 1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모두 세 가지 것이 중복되었습니다. 매일 드려졌던 상번제의 희생제물과 월삭의 희생제물과 나팔절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수송아지 3마리(나팔절 1, 월삭 2), 수양 2마리(나팔절 1, 월삭 1), 어린양 16마리(나팔절 7, 월삭 7, 상번제2), 속죄제 수염소 2마리(나팔절1, 월삭1)입니다.

나팔절 때에도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속죄

를 의미합니다. 신년제사에도 속죄제 의식을 집행했던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 일은 다른 제사때보다 훨씬 중요한 성회였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된 자신을 거칠게 다루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애통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물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해 드려졌던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있었으며,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번제물과 함께 드려진 수염소 속죄제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민 29:1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내용은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때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첫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려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려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특히 초막절 7일 동안 성전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 와 제단에 붓는 '전수의식'이라는 매우 특별한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 수문을 통과한 뒤, 제단 서편에 포도주와 함께 그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과거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다가올 겨울 우기를 바라보며, 대지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의식은 구속사적으로 영원한 생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의식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 7:37-38) 이 선포처럼 눈에 보이는 실로암의 물을 보며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8일째 성회를 마치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는 매우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려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초막절 때 드려졌던 제사의 형식은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사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쁜 시대라고 해서 제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

나눔께 드려졌던 상번제도 오늘날에 지켜져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지켜졌던 제사도 오늘날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매달 첫날에 드려졌던 월삭도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처럼 여러 예배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

[삼상 21:1] 다윗이 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농'으로 갔습니다. '농'은 기브아와 대략적으로 4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실로의 성전이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성전의 성물들을 '농'으로 옮겼는데 '농'은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후일 사울에 의해 농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죽은 자의 수가 무려 85명이나 되었습니다.

"[삼상 22:18]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인을 죽였고"

더군다나 농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성전과 함께 거해야만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하면서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때에만 성전에 거하면 되었지만 대제사장은 항상 성전과 함께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노예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의 성전이 노예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히멜렉'은 '아히야'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봇을 가지고 사울과 함께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다윗을 영접했을 때 "... 떨며..."(1절)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가 천부장인 다윗을 영접하며 떨었던 것은 그가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음을 소문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бы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국경을 넘기 이전에 대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울도 사무엘을 죽이지 못하는 안전지대였지만 다윗이 선지자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할 처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무엘의 처소에 함께 있었다라면 아마도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선지자의 길이 아니었기에 죽음의 길로 다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기 원했습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보장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떡만 보였습니다. 다윗은 떡을 구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만나고 나니 그의 떡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떡만 가지고서 황급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에 가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담임목사가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우리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심령이 곧 교회입니다. 이제

는 우리의 몸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나아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된 성전을 모두 헐어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삼일 만에 성전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처럼 성전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교회만 바라보십니까? 주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십니까? 이제 주님은 당신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에 거하십니다. 날마다 당신은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해하기 애매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납득하기 애매할지라도 납득해야 합니다. 느끼기 애매할지라도 느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삼상 21: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혼자 온 다윗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그가 왜 다윗이 놈에 왔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 끌려왔을 때 그가 얼마나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여쭙봤는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나라의 천부장인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삼상 22: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인 그가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열

심히 구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왜 놉 땅까지 와서 자신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을 대할 때 어찌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까지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목회자들에 대해 절대적인 존재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는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에게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비밀리에 임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정해진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거짓을 고했던 것은 행여나 아히멜렉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거짓을 해야 아히멜렉이 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라면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끌려갔을 때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제사장답게 정직하게 말하고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삼상 21: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삼상 21: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삼상 21: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삼상 21: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4절)라고 말했습니다. '향용 떡'은 제사와 상관없이 먹는 일반 떡을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진설된 떡을 말합니다.

원래 진설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4절)고 허락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 시대에 참으로 강력하게 지켜졌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물건을 훔친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의 율법의 강력함이 400년이 지난 그 시절에도 이처럼 약화되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는 얼마나 약화되었겠습니까? 지금 우

리는 율법이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은 시대가 지났다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강력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삼상 21: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놉의 성전을 방문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 '도엑'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엑'은 성전을 방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엑'은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가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의 측근임을 알려줍니다. 목자장은 사울의 모든 가축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후일에 놉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했던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가축만 관리하는 목자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신하였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 에돔 사람이요..."(7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 농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잔혹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도엑'이라는 자로 인해 농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삼상 22: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다윗은 농에 있는 '도엑'을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도엑'을 잘 처리했더라면 농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학살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엑'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

신이 살기 위해 형제를 팔아넘기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스승도 배반할 수 있는 가롯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자들을 만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런 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저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들은 차라리 안 만나면 좋은 것입니다.

“[마 26:24]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도엑'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고 아히멜렉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도엑과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도엑과 같은 자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좋

은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는 마치 멸
평한 도시를 파멸시키는 쓰나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쓰나미가 덮칠 수
있듯이 도엑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고난의 쓰나
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도엑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
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도엑을 만나지 않도록 기
도하십시오.

[삼상 21: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
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
하므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
다

[삼상 21:9]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
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
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
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건
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매우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골리앗이 가

지고 있었던 흉악스러운 칼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은 에봇과 함께 보관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의 칼이 흉악스러운 칼에 불과했다면 결코 에봇과 함께 보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에게도 성스러운 물건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욱 성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을 진멸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연상케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천 번을 살아도 다윗에게 잊히지 않을만한 위대한 사건이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도우심의 하나님'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골리앗의 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습니다. 저마다의 골리앗의 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당신 곁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골리앗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조금만 힘이 들어도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암 진단 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암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암 진단 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암 진단 기록부'입니다.

[삼상 21: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삼상 21: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좃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삼상 21:12]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삼상 21:13]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

친 체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삼상 21:14]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삼상 21: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농에서부터 대략 4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성읍인 '가드'로 도망을 친 이유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어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가리켜 "...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11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다윗이 현재 왕이 아니지만 사울 왕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의 가드로 나아간 것은 일종의 망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몰래 가드 성읍에 숨어지내는 것이 아니라 망명처럼 자신을 드러내놓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드 성읍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가드로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와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멸당했는데 다윗을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11절)라고 널리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반응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 때문에 진멸당한 추억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가드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13절 참조) 가드 사람들이 실제로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

다.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의 존재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가드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두려운 존재라 했을지라도 블레셋 가드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으로 도망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블레셋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망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 땅에서 살지 않았지만 만일 다윗이 가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그에게 있는 신앙마저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세상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잃게 되고 신앙생활도 내팽개치곤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막의 변천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천국의 장막을 보여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

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의 '성막(미쉬칸)'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쓰인 '장막(스케네)'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는 성막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살면서 모든 행정도 지파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성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거대한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

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노예생활 해 왔던 저들의 문화가 가나안 땅도 거대한 영토로 생각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영토를 빼앗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성막'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막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성막을 잘 유지하지 못했으며 성막의 성물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갈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막은 길

갈에 안치되었습니다(수 4:16, 5:10, 9:6). 길갈은 여리고 근처지역입니다. 전쟁때문에 우선 여리고와 가까운 길갈에 성막을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길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막을 안치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수 18:1).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막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은 장막이 아닌 건물을 뜻하였습니다(삼상 1:9).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부터 성막은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건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 저곳 옮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건물로 지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성막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행정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예배처소도 만들어졌습니다(삿 18장 참조, 시 78:58). 비록 실로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성전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예배처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의 함락 이후의 성막

엘리 사사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던 실로 성전이 블레셋인들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시 78:60-62). 실로가 함락되기 직전에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삼상 4:11).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
하였더라”

언약궤는 다윗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하였
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
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길갈에 다시 세워진 성막

실로가 함락된 이후에 성막은 다시금 길갈로 옮
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무엘과 사울
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
다(삼상 11:15).

“[삼상 11:15]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놉의 성막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진설병을 취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삼상 21:1-6).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성막은 길갈에서 놉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시대 때에 성막이 놉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브온의 성막

또 다시 성막은 놉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면 성막의 성물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대상 21:29).

“[대상 21: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

으나”

다윗성의 성막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궁궐 옆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삼하 6장 참조). 하지만 비록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지만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상 21: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 3:4).

“[왕상 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기브온 산

당에서 드러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다윗의 장막보다 더 좋아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모든 성막의 성물들은 전부 솔로몬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만들어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까지(기원전 586년) 대략 40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완공 되었으며 바사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다총독으로 임명된 다윗의 후예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됩니다. 외형이 왜소했으며 알렉

산더 대왕 사후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헤롯 성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이두매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매우 왜소한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호화스럽게 건축을 합니다. 80년간에 걸쳐 건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AD63년에 완공된 헤롯성전은 AD70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건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 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

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세시대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각 영혼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

[삼상 22:1]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삼상 22: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다가 그곳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음을 보고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

의 가족들도 모두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베들레헴과의 거리가 불과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의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의 숫자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는 친구에게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뉴스 기자가 아둘람에 있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모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이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많은 날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로운 자보다 죄지은 자가 훨씬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법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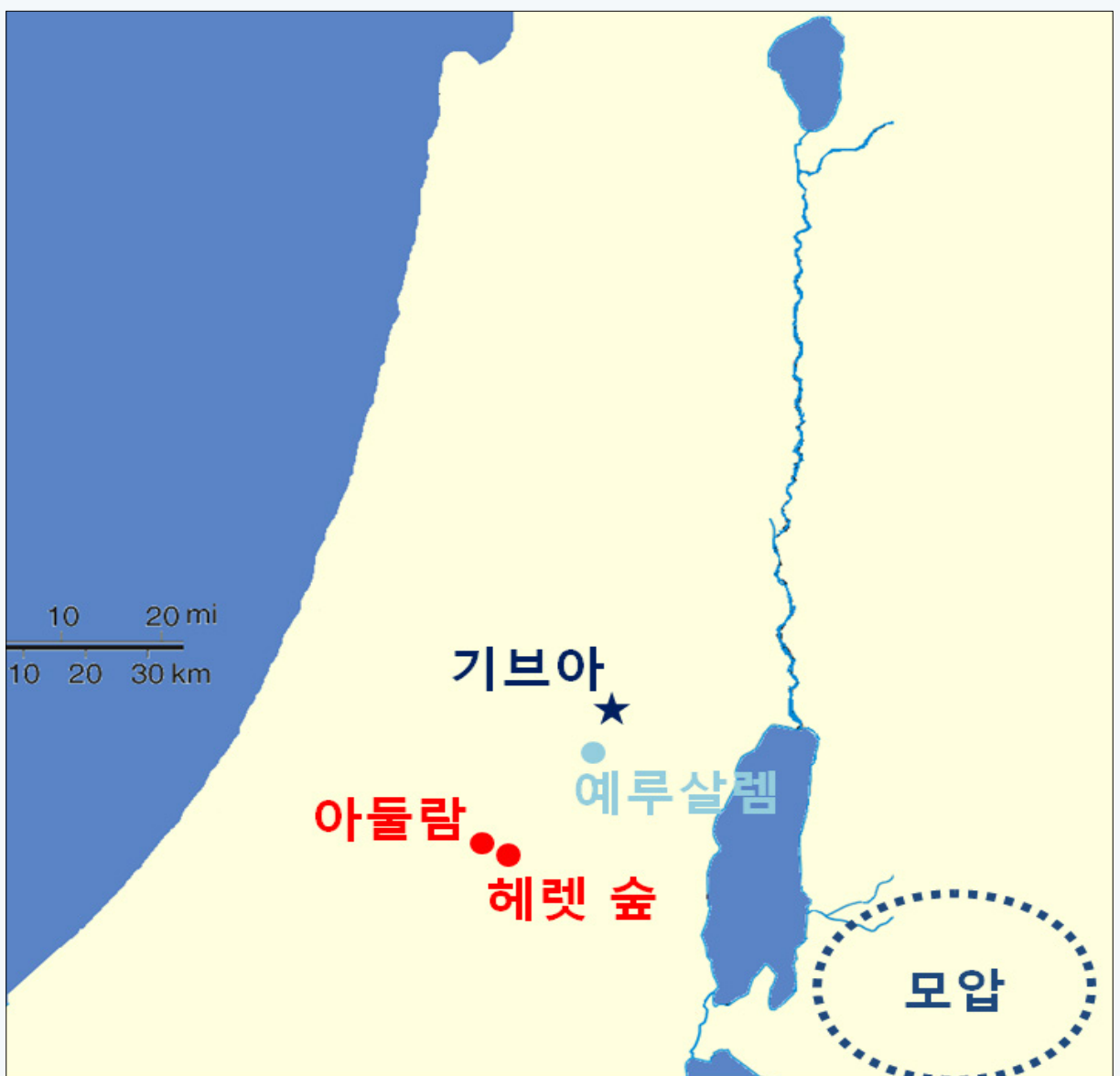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자녀보다 병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이 모든 자녀를 모두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중에 덜덜어진 자녀를 특별히 더욱 사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의인은 스스로 잘 살아가지면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삼상 22: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삼상 22:4]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삼상 22: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들람 동굴은 4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기엔 너무나 적합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열악한 장소였습니

다. 결국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신 장소를 모압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그곳에 거주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모압 왕은 다윗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모압 왕은 그곳에 다윗의 요새를 만들도록 허락하였고 다윗은 그 요새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을 벌하기 위해 다시 한번 파송되었습니다(삼하 24:11-19).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했으며 잘못된 장소에 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계속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적절한 장소에 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꾸만 적군 지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의 가드 성읍으로 도망쳤으며 이번에는 모압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진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선지자를 파송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장소에 거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다윗처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야"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더 이상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러한 다행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 더 이상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깨닫고 있다는 것이 사뭇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상 22:6]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삼상 22:7]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과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삼상 22:8]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신

하들을 불러 모으고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코 다윗이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울은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대부분의 신하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가리켜 "... 너희 베냐민 사람들과 들으라..."(7절)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출신 지파 사람들로 요직을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부분의 신하들을 자신의 지파 사람들로 등용한 것은 그만큼 그가 마음이 넓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면 그는 모든 지파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 지파 사람들로 대부분 요직을 채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편협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주변에 자리하도록 배치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변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로 하여금 요직에 앉게 배치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매우 편협적인 것이어

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등용할 때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및 육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삼상 22:9]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삼상 22:10]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삼상 22:11] 왕이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삼상 22:12]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삼상 22:13]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엑'은 사울 왕에게 아히

멜렉을 고발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제사사이에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데려오라 명하였습니다.

아히멜렉과 뭍에 있는 온 제사장들은 사울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13절) 떡과 칼을 주었냐고 꾸짖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단지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떡을 주었건만 사울은 그러한 행위를 반역 행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된 생각 안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은 나쁜 놈이다'란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위를 탈취할 것이다'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틀 속에 아히멜렉이 들어오니까 아히멜렉의 행위가 비록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눈에는 악한 행위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배우자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배우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내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좋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이 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만난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연이어서 살지 마십시오. 어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만나십시오. 10년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판단 또한 보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삼상 22: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

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삼상 22: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라고 물으면서 "...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14절)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15절)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윗을 위해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이었으며 왕의 사위되는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아히

멜렉이 그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자주 들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갖고 계시는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상 22:16]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삼상 22:17]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삼상 22:18]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인을 죽였고

[삼상 22:19]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찢더라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히멜렉에게 "...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16절)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그의 온 집의 식솔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찌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울은 세상의 왕이 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래도록 그 왕의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찌나 왕의 자리를 중

아했던지 그만 하나님까지 자신 밑으로 기어 다니게 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려 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지만 신하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는 저들이 사울처럼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사울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저들도 제사장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생각은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악신에 의해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신하들은 사울처럼 심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

가 목회자의 먹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죄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보다 더 악한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목회자를 죽이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은 자신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여겼듯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백성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평신도 목회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

니다. 우리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목회자나 평신도가 모두 똑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똑같은 왕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아무 때고 연단에 올라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분이 언제든지 원할 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으며 맡겨진 의무가 각각 다릅니다.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때 ‘도엑’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도엑은 사울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악신이 가득한 자의 신임을 받았으니 그에게 악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악한 영과 노는 법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친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뜻과 도엑의 뜻이 같음을 보십시오. 이

처럼 악한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단결은 착한 자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나 강력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강력한 악한 자가 드디어 칼을 들었습니다. 도엑이 칼을 들었더니 삼시간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에 사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아말렉 족속입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가족이며 저들은 이스라엘 같은 동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엑은 자랑스럽게 칼을 들어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위대한 행동이란 결국 동포를 죽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죽이게 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목표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지옥 길에 한 명이라도 더 동참시키기 위한 마귀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십시오. 행여 마귀 근처에 있다

가 그가 펼치는 광란의 칼춤사위에 상처받지 마
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
다.

[삼상 22:20]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삼상 22:21]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
을 다윗에게 고하매

[삼상 22: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
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
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삼상 22:23]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
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학살 가운데서 한 사람을 피신
케 하셨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대제사장의 고손자였
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혈육을 보존하신
것은 그로 인해 영적인 흐름이 유지되게 하시고
자 함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곧장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을 모두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로부터 놉의 학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22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놉의 제사장 가족들을 학살한 것은 사울의 명령에 의해 도엑이 행한 만행이었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나의 연고로다"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다윗의 말은 다윗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게 해 줍니다. 비록 놉의 학살은 사울에 의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큰 헌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변화'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100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죄인이 되어야만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기를 꺼려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의인의 모습으로 다가섭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라 여기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

[삼상 23:1]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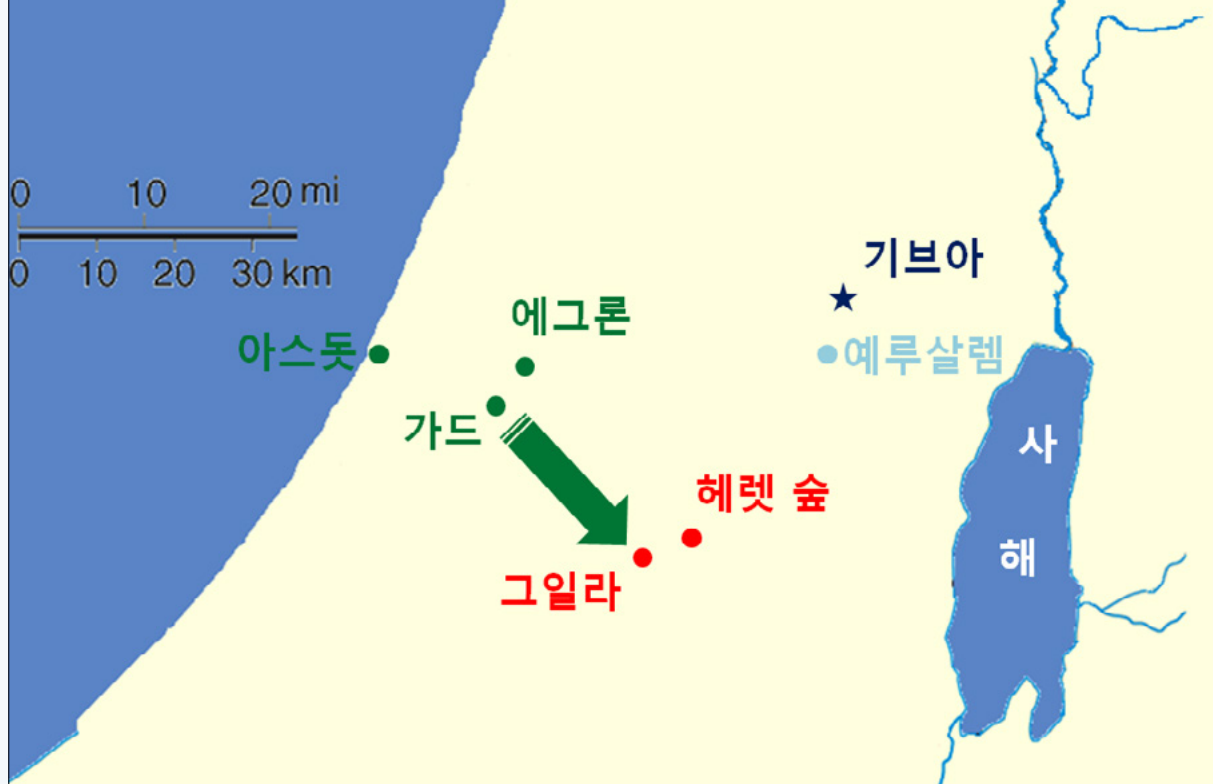
[삼상 23:2]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삼상 23:3]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삼상 23:4]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삼상 23: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씀을 따라 모압에서 나와



헤벳 수풀에 거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성읍을 탈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공격한 것은 마침 그때가 타작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노략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일라’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으로 헤벳 수풀과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은 블레셋 국경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에 의해 탈취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0km도 채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이

라도 그일라 성읍을 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태는 그일라 성읍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구해준다면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성읍이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노략질을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다윗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2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당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수준은 모세의 수준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사울이 그일라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다윗이 곧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에봇과 함께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었습니 다. 만일 다윗이 우림과 둠밈이 없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처한 상태가 사울에게 쫓기는 상태여서 그일라를 구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그 즉시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그일라 성읍을 구원시켰습니다.

만일 다윗이 현재 처한 상태만 바라봤다면 그일라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함께 한 동료들의 말에 의존하였다면 그일라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결코 그일라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에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위태롭고 도저히 빠져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헤쳐나갈 피난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삼상 23: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삼상 23: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삼상 23:8]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삼상 23:9]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삼상 23:10]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삼상 23: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 오리라

[삼상 23:12]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삼상 23:13]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어 다윗에게 아비아달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는 엘리 대제사장의 고손자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회자

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사울은 오히려 아히멜렉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아달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욕'뿐입니다. 정욕을 위해 살고 정욕을 좋아하며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가 좋아서 왕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하였더니 우리와 둠밈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할 때 우리와 둠밈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 우리와 둠밈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현저한 차이를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일로라로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우림과 둠뭉'이었던 것입니다. '우림과 둠뭉'은 에봇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뭉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뭉을 통해 그일로라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도와 자신을 붙잡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보통 때였으면 그일로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로라 성읍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생각으로

그일라 성읍에 그대로 있었다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성읍 밖에는 사울이 버티고 있고 성읍 안에서는 백성들이 다윗을 붙잡는다면 다윗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시로 그와 함께하는 동료 6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재빠르게 광야로 도망을 치자 사울은 더 이상 그일라 성읍으로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밈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림과 둠밈과 같은 돌맹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라는 돌맹이는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돌맹이는 아닙니다. 돌맹이로 만들어진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변화되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지 않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림과 둠뭇이 필요 없다고 여기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도 성령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도 다윗처럼 매사에 우림과 둠뭇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삼상 23:14]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삼상 23:15]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삼상 23: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삼상 23:17]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삼상 23: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서 나와 십 황무지 산골 지역에 거했습니다. 그일라 성읍에서 곧장 십 황무지 산골로 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십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광야 지역에서 여러 군대를 옮겨 다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함께하는 동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저들의 안전과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다윗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한 왕으로 쓰시고자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다윗과 같다면 하나

님께서 당신을 다윗처럼 귀하게 쓰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귀한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삼상 23:19]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 이까

[삼상 23:20]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 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삼상 23:21]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삼상 23:22]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삼상 23:23]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의 추적은 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추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신은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악한 마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까지 죽이고 제사장들을 학살하였던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자가 있거나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지 않는 자는 어김없이 제사장처럼 죽임

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의 수풀 지역에 거할 때에 십 성읍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저들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성읍 모든 주민이 몰살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준 십 성읍 사람들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21절)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백성의 천부장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 성읍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자신을 도와준 십 성읍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십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형제를 죽이는 것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하나님의 복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인 사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지만 다윗을 죽이는 데 함께 한 십 성읍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말없이 듣고만 있어도 가담하는 것입니다. 물만 마셔도 가담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가담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배우자라도 멀리하십시오. 가까이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삼상 23:24]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삼상 23: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삼상 23:26]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삼상 23:27]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삼상 23:28]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삼상 23: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십 성읍 사람들은 사울을 돕기 위해 먼저 다윗이 거한 곳을 수색했습니다. 다윗은 십 광야의 남쪽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사울에게 다윗이 거한 장소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진격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가급적 다윗을 생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하고 있는 마온 황무지를 사울의 군대로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다윗에게 사울이 추격해 온다

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미 다윗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어찌나 사울의 공격이 완벽했던지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지혜롭게 사울의 추적을 잘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그런 뛰어난 지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윗이 빠져나갈 지혜를 짤 것임을 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대로 하여금 마온 황무지에 있는 산을 포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늘 했던 것처럼 급히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번만큼은 쉽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변수를 쓰셨습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여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자가 달려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

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떠났습니다.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지역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도피의 바위'입니다. 이는 곧 '다윗의 도피를 성공하게 해 준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도피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도피를 돕는 바위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도피 바위'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바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가 세워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바위는 닫혀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고난 때마다 바위를 보내어 피할 수 있게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피 바위'가 닫혀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피 바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피 바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피 바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바위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림과 둠뭉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뭉을 가슴에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림과 둠뭉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뭉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림과 둠뭉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걸쳤던 판결흉패 안에 집어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Urim)과 둠뭉(Thummim)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떠

한 지식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림>과 <툼림>입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음역을 드래도 음역해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불꽃들'이란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툼림>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무용지물이었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는 적어도 포로시대 이전까지에 걸쳐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처럼 우림과 둠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으며 그 외에 우림과 둠뮴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우림과 둠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이처럼 우림과 둠뮴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뮴을 가슴에 품고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한가지씩만 요청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예, 혹은 아니요"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지 아니면 가슴에 품은 우림과 둠뭉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방법에 의해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을 알 수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림과 둠뭉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시대에 비해 너무나 축복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령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시대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뭉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도구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

[삼상 24: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 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삼상 24: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삼천 용사를 거느리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삼천 용사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

한 사람'이었습니다(2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매우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남자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건장한 군사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600명이라는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 또한 최정예 군사를 확보한 것입니다. 사울이 준비한 삼천 용사는 사울이 집권 2년째에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시킨 삼천 용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삼천 용사는 온 힘과 뜻이 집결된 군사 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엔게디에는 '들염소의 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사해 지역의 서쪽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엔게디는 황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들염소의 샘'이란 뜻이 붙은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여 간 곳은 '들염소의 바위'였습니다. 다윗은 이곳 엔게디 광야의 '들염

소 바위' 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염소 바위에는 샘이 많았으며 수풀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천연 동굴이 많아서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험악해서 들염소나 산양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지만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삼상 24: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 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삼상 24:4]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동굴 안이 용변 보기에는 안락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햇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동굴 안에서 땀도 식힐 겸 해서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가리켜 "...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3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인데 용변을 볼 때에 겹옷이 발을 가리우기 때문에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냄새나는 상황에서 병기 든 소년조차도 옆에 가까이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들어온 동굴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이미 동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의 경우엔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곳일 뿐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4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다윗에게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미 다윗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 갓에 의해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보다 강력하게 "이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단숨에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겹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의 겹옷자락을 베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겹옷을 벗어 옆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겹옷자락을 가만히 자를 수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일생일대의 매우 좋은 기회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다윗을 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자신의 동료들도 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여야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다윗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이러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반응에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셧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놀라셧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을지 예상치 못하셧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가 다윗과 같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최상의 조건입니다.

[삼상 24:5]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찢려

[삼상 24: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삼상 24: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삼상 24: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삼상 24:9]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
시나이까

[삼상 24: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
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
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
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
니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마음
이 찢렸습니다. '찢리다'는 단어는 <나카>로서 '치
다', '때리다', 또는 '죽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는 단순히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어선 것 정도가 아니라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의 찢림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의 찢림은 그
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는 않았나 하는 두
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 질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는 것
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 자신

은 천부장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떠난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엔 질서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서 파괴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파괴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

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질서를 잘 따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삼상 24:11]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겹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삼상 24:12]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삼상 24:13]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삼상 24: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가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

이다

[삼상 24: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서 겉옷자락만 베었음을 내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진정 자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진작에 죽었을 테지만 다윗의 마음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옛 속담을 말하면서 자신은 결코 악한 자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속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 7:20] 이렇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언뜻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열매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느낌이나 경험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열매로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을 더 많이 정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열매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열매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됨됨이는 속일 수 있어도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고 됨됨이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됨됨이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됨됨이가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저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생각의 결실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이 열매를 맺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생각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는
실제의 삶입니다.

많은 부인들이 남편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원수 같으니까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왜 아내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편들의 말은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들의 말이 현실로 드러났다면 결코 아내들이 남편들을 향해 '원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말보다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말은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만이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거짓을 못 합니다. 열매는 실수도 안 합니다. 열매는 가짜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를 향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향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 교회를 향해 좋은 열

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삼상 24: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삼상 24: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
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삼상 24:18]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
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삼상 24:19]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
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
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
라

[삼상 24:20]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삼상 24:21]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
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
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삼상 24: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다윗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울은 다윗이 악한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악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17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19절)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이 진실로 마음에 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진실로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진실로 다윗의 선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이

며 다윗의 선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20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껏 사울은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네가 그러다가 네 친구 다윗에게 네 왕위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고 꾸짖으면서 "다윗이 너를 친구로 삼는 것은 네 왕위를 빼앗기 위함임을 왜 모르느냐?"며 요나단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았더니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내어 주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에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에 사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

개'의 시간은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어딘들 있겠습니까마는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막상 성도들이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지라도 담대해야 할 것은 저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금새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잔소리보다는 남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때때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아내를 폭행했을 때 오히려 회개의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술 먹은 게 감사하고 폭행한 게 감사할 수 있음은 그로 인해서 남편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에 의해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갇은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목숨마저 빼앗으려는 사울이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평생 원

수'이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또한 '평생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의 겹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내들은 매일 남편의 가슴을 찌르고 있으니 어떻게 원수 된 자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다윗처럼 겹옷자락만 자르시고 사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울이 회개하였듯이 남편들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적잖게 많은 원수들을 만납니다. 아주 많은 원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에게 앙갚음을 합니다. 원수가 뺨을 때리면 뺨을 때립니다. 원수가 한 대 때렸으면 나는 두 대를 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뺨 한 대 맞으면 뺨 맞은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쪽 뺨마저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은 돌려댈 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뺨을 향하여 내뿜두르는 우리의 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원수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원수가 없는 세상은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원수가 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께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원수 된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용서함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 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죄인 사울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왕인 사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죄인 된 원수가 더 이상 악한 자로 보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원수 된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

[삼상 25:1]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으며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은 기원전 1100년 경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50세 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대략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7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83세에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을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은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망을 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은 이미 사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다윗

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의 회개를 죽게 만들었으며 다윗의 믿음 또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또 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지역에 위치해 있는 광야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로 있는 광야인 셈입니다. 광야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분명치는 않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도망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란 광야는 도저히 사울이 추적해 올 수 없는 지역임은 사실이었습니다. 바란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장소일지는 모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바란 광야 지역에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을

지도 모릅니다.

[삼상 25:2]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삼상 25: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삼상 25:4]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삼상 25:5]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삼상 25:6]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삼상 25:7]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삼상 25:8]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삼상 25:9]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삼상 25: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삼상 25: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삼상 25: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삼상 25: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마온으로 이주했습니다. '

마온'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거하기 직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위험에 처했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간신히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마온 광야로 되돌아온 것은 식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가 여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마온 지역에 거하는 '나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매우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식량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발이 거했던 '갈멜'은 '마온'으로부터 대략 2km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십 광야와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이미 나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나발의 짐승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발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보통적으로 양털을 깎는 때는 축제기간이었습니다.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양식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단순히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말로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라고 말하면서 "...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10절)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더군다나 "...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11절)며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 전체를 무시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지금껏 나발을 위해 돌봐주고 지켜주는 정성을 기울였건만 오히려 나발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13절 상)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려는데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갈 정도였으니 다윗이 나발에 대해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그의 믿음 또한 죽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발이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까지 분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심할 경우엔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도 칼을 집어 들고 형제를 죽이려 길을 떠나곤 합니다.

형제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혹 가족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혹 배우자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삼상 25:14]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

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삼상 25: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삼상 25: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삼상 25: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삼상 25: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삼상 25:19]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25: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삼상 25: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삼상 25: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삼상 25: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이 거느리는 소년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죽이려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중재를 통해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지만 소년의 보고가 없었다면 아비가일의 중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입을 다물라고 가르칩니다. 괜히 입을 열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은 아니었지만 나발에 의해 화가 잔뜩 나있는 다윗의 분노를 풀기엔 그럭저럭 많아 보인 양이었습니다. 보통적으로 한 가족의 한 끼 식사는 떡 세 덩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곡식 다섯 세아는 대략적으로 40리터 정도 됩니다. 한 세아가 7.3리터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은 다윗의 600 용사와 함께 하는 가족들의 허기를 채우기엔 충분했을 것입니다.

[삼상 25: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
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삼상 25: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
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
이다

[삼상 25: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
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상 25:27]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삼상 25: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
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
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
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삼상 25: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였을 것

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삼상 25: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삼상 25: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게 다윗을 대하였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태도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대하였던 다윗은 아비가일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때 곧 바로 그녀는 자신의 남편 나발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욕했습니다. 그녀는

“...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25절)라고 남편을 낮게 표현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었으니 그녀의 표현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비가 일이 남편 나발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발의 미련함을 폭로함으로써 더욱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언급하면서 “...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26절 상)라고 말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잠깐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산 자들의 생각과 억울함을 모두 아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

게 하면서 "...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26절) 라고 말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의 피를 친히 흘려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준비해 온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때에 가지고 온 음식을 건네준 것입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음식을 건네주었다라면 다윗의 마음에 '저가 나를 거지로 아는가?'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급하게 음식을 건네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착하게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건네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27절) 라고 말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함께 하는 용사들을 챙길 수 있는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위대한 점을 칭찬하

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칭찬에 녹지 않을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라고 말하면서 "...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28절)라고 다윗의 위대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여호와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그 어떠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은 더 이상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과 같은 자를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더욱 지혜로운 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31절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마음에 두었으며 나발과 같은 자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표현은 다윗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가라앉게 하며 성읍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잠 14: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삼상 25: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삼상 25: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삼상 25: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삼상 25: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
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했습니다. "... 네 지혜
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33절
상). 여기서 언급된 '칭찬하다'라는 말은 <바라크>
인데 이 단어는 '찬송하다'란 단어와 '복이 있을지
어다'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
어를 다윗은 세 차례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 것입
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태도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
은 세상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
서의 칭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적인
칭찬을 칭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최고입니
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으
로부터 받는 칭찬을 더욱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으
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
찬을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

축복하다', '찬양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단어인데,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는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칭찬을 통해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로 있을 때에는 그저 잘 사는 부자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칭찬으로 위대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할 마음이 있다면 칭찬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빛나도록 만듭니다.

“[잠 27: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삼상 25: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삼상 25:37]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삼상 25:38]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삼상 25:39]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부어주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어서 더욱 그 기쁨은 더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

발은 크게 기뻐한 상태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크게 기뻐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행여 다윗의 얘기로 기뻐하는 그의 마음에 낙담이 찾아올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아침에 다윗에 대한 일을 나발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발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그런 모습을 통해 아내된 자로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라도 남편의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아비가일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나발의 몸이 돌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증상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심장마비 증세나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을 때 주로 심장이나 혈압과 관련된 병

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 그가 낙담하여..."(37절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담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버전에서는 'his heart died within him'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나발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죽고서 몸이 죽기까지 십 일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죽을 때 몸도 따라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는 것보다 마음이 죽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서 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이 지켜지니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니 몸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함으로써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방향이며 그 방향으로 가다 간 골병들어 죽습니다.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삼상 25:40]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삼상 25:41]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삼상 25:42]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삼상 25:43]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

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삼상 25:44]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갈렙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후일 다윗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발의 재산이 다윗의 재산이 될
수 있었기에 더욱 유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
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지혜'였습니
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아내가 필요했
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

[삼상 26: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상 26:2]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삼상 26:3]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삼상 26:4]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줄 알고

[삼상 26:5] 일어나 사울의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옮겨와 나발이 죽은 후에 십 광야 근처에 정착하고 있을 때에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 광야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해바쳤습니다.

사울은 십 광야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곧바로 군사 삼천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사울은 바로 얼마 전에 이곳 십 광야에서 다윗을 절대로 추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고했을 때 그것이 사울의 마음에 다시금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십 성읍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하길라 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을 고발했는데 이번에도 하길라 산에 있는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삼상 23:19]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 이까”

위 구절은 십 성읍 사람들이 첫 번째 사울에게 고자질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하길라 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길라 산과 이번 하길라 산은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첫 번째 하길라 산은 수풀 요새였지만 두 번째는 그냥 하길라 산이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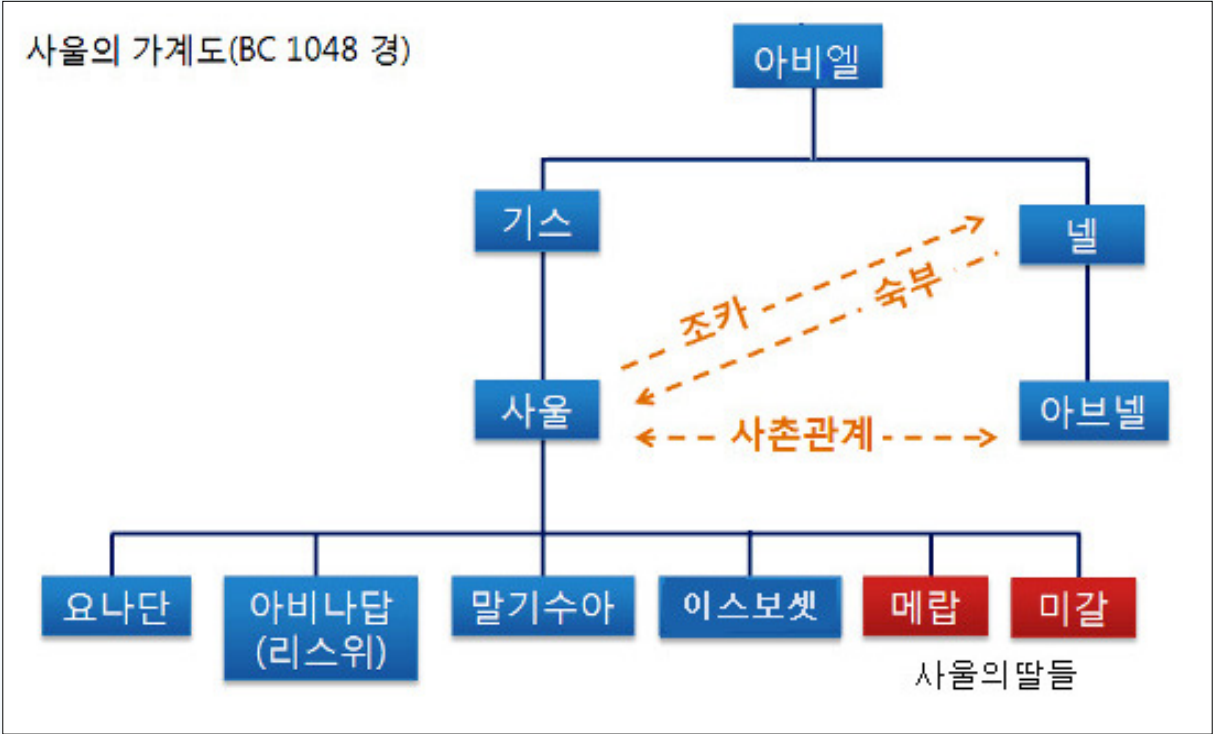
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길라 산이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악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악한 자의 말에 의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악한 일에 가담하길 원할 때에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하며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여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이 직접 그곳을 정탐하였더니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사울이

군대장관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삼상 26: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삼상 26: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삼상 26: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

번에 땅에 꽃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삼상 26: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삼상 26:10]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삼상 26: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삼상 26: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던라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로 더 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6절)고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의 하나인 헷 족속 사람이었으나 다윗을 도와 용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새'는 군대장

관 '요압'의 동생인데 이들은 모두 '스루야'의 아이였습니다. '스루야'는 아버지 이새의 아내 된 여인이 이전의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압의 형제들은 친족관계였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첫 삼인 용사에는 들지 못했지만 삼십 용사 중의 삼인 두령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는 매우 용감한 용사였는데 다윗이 누가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에 서슴지 않고서 자신이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침투했습니다. 삼천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숙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뛰어난 침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사울이 "...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5절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비새는 철통수비를 뚫고서 사울의 숙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곁에 갔더니 사울의 창이 사울 옆의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8절)라고 말하면서 당장에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행동을 막으면서 "...죽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9절)며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비새가 더욱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다윗의 장수들로 하여금 더욱 다윗을 신뢰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피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며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삼상 26:13]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삼상 26:14]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삼상 26: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삼상 26:16] 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사울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깰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15절)라고 꾸짖으면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숙소에 들어가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아브넬을 꾸짖은 것은 아브넬이 군대장관으로서 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넬이 철저하게 보초를 세우고 철통 같은 수비를 했더라면 다윗이 사울의 숙소까지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마다 맡은 직분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의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훨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일에는 태만하는 태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

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삼상 26: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삼상 26:18]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삼상 26:19]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삼상 26:20]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누군가 사울의 마음을 격동케 함으로써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십 성읍 사람들이 다윗이 거하는 장소를 사울에게 고발했는데 이번에도 십 성읍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의 거하는 장소를 사울에게 고했더라도 사울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울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추적한 것은 누군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격동시키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종용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 여호와와 기업에 붙지 못하게..."(19절 하) 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에 붙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는 일반적인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미울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하 직원이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23절 상 참조)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의 의와 신실함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의와 신실함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신실함을 밝혀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며 견딜만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와 신실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신실함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삼상 26:21]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 되었도다

[삼상 26:22]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삼상 26:23]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

실을 갇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
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
이다

[삼상 26:24]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
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삼상 26: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
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
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의 의와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 내가 어리석은 일
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 되었도다"(21절)라고
다윗에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21절)고 외쳤습니
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
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코 다윗을 죽이
려고 거짓된 말로 "이리 오라"고 말한 것은 아니
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믿
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

[삼상 27: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삼상 27:2] 일어나 함께 있는 육백 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삼상 27: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삼상 27: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은 블레셋 가드 땅이었습니다. 가드는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곳입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을

때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백성들이 다윗의 망명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가드가 광야의 동굴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금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쳤다가 보다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 장정만 600명이다 보니 대략 1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게 거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방황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침으로 인해 그의 방황은 더욱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을 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힘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신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막상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삶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상 27: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서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삼상 27: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삼상 27: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일년 넉달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5절)라고 요구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 성에 일년 넉 달 동안 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곳 시글락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에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그곳에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삼상 27: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삼상 27: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 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삼상 27:10]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삼상 27: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

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삼상 27: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 족속들을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술 사람'은 유랑 생활을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기르스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남부에 거주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골치 아픈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도 훗날을 도모하여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족속들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공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안 되었기에 침략한 족속들의 남녀를 남기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의 방해가 되는 남방 세력을 진멸했

다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가리켜 "...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12절)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들을 진멸했던 것인데 아기스 왕이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

[삼상 28:1]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삼상 28: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할 때에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만일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2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기스 왕의 종으로서 아기스가 말한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자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다윗의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2절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족속의 개가 되겠다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의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귀 때문에 세상의 개가 되겠다고 약속하곤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은 명예와 부귀를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은 하나님의 복을 아기스 왕의 복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보다는 아기스를 더 마음에 들어했던 것입니다.

[삼상 28: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 내었었더라

[삼상 28:4]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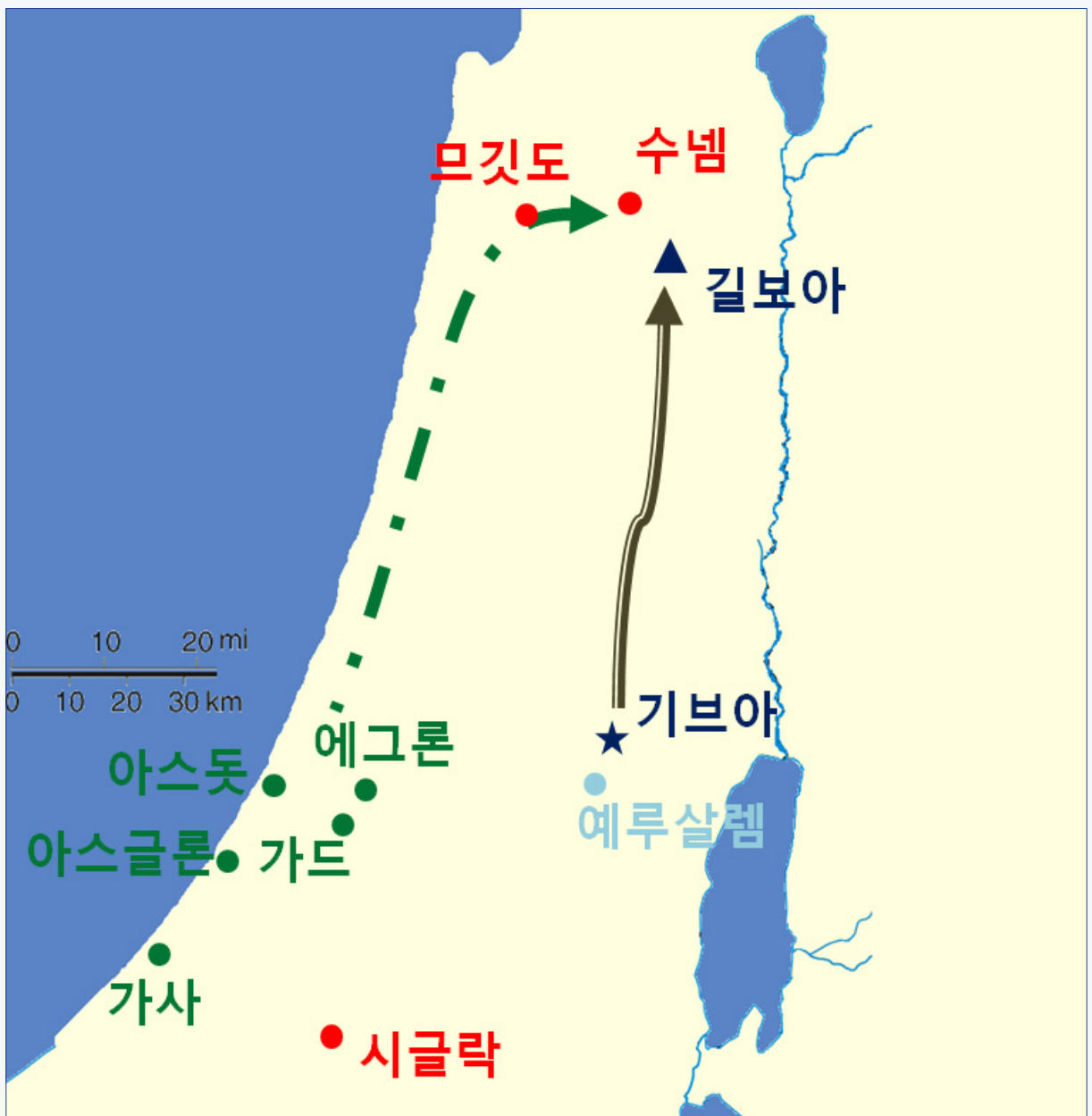
[삼상 28:5]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삼상 28:7]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겁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거의 40년 만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고서 2년째가 되었을 때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치렀을 때는 다행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집권 말기인 지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의 마음에 대단히 힘든 전쟁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4절).

사울은 마음에 두려움이 극심하여 심히 떨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6절).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가 영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 대제사장을 죽였으므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사울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같이 착한 사람을 죽이려 했으므로 더 이상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매우 답답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통치 초기 때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모두 이스라엘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 내었었더라"(3절 하).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이었으며 영적인 사무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악한 영과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서 영적인 선지자가 떠나갔으며 영적인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쫓

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쫓아냈을 때는 그의 말로 가능했지만 다시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직접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을 향해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울에 대한 모든 희망을 완전히 버리셨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희망까지도 송두리째 접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는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상 28: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삼상 28: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삼상 28:10]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삼상 28:11]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울임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 자신이 쫓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쫓아낸 당사자가 지금 자신을 찾아와 죽은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참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정작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여전히 사무엘을 찾고자 하는 그의 모습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죽은 가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찾습니다. 마치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죽은 자를 하나님보다 더 그리워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죽은 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이 평소에 하나님보다 죽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며 죽은 자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삼상 28: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삼상 28: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삼상 28: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 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여인은 영적으로 사무엘의 환상을 보고서 비로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구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밖에는 그렇게 사무엘을 불러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모양새를 물었습니다. 이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이 사무엘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 한 노인이 올라 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14절)라고 말하자 사울은 그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본 형상이 사무엘인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강제로 끄집어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신접한 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가족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며 죽은 자의 행동이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접한 자들의 이러한 능력은 모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사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신접한 자의 능력이 마귀의 사악한 영

향력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접한 자를 좇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접한 자를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상 28: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요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삼상 28:16]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삼상 28:17]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삼상 28:18]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삼상 28:19]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

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삼상 28:20]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
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함
이요 또 그 기력이 진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
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말을 사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예언자와도 같은 형식입니다. 다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신접한 여인은 마귀의 말을 전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만일 예언자가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 비록 겉모양은 예언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 방심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듯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

으니 더 이상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사무엘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달해 주었던 사무엘의 말은 사실상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말은 모두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녀가 전해준 말을 사무엘의 실제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듣고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신접한 자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기력이 쇠하여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이러한 신접한 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는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그 나중은 절망과 고통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접한 자를 가까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시기 이전에 자신 스스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신접한 자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 그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16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미워한 것은 사실이나 사울의 대적이 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대적자로 서시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한 모든 말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19절 상)고 전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된 말입니다. 물론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을 때 실제

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악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선포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악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뱉는 말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독화살이 되어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삼상 28:21]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삼상 28:22]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삼상 28:23]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삼상 28:24]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삼상 28:25]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 때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서 나아갔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정성으로 섬겼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가 되셨다는 말은 사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접한 여인의 거짓된 말은 사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주변에 신접한 자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신접한 자는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줄지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죽게 되었듯이 당신 또한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누가 신접한자인지 찾으십시오.

신접한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입니다. 신접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신접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비록 신접한

여인이 허기져서 배고파하는 사울에게 떡을 제공했지만 이는 칼로 죽인 자에게 물을 먹인 꼴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신접한 자는 당신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며 사랑을 전하지만 실상은 당신을 칼로 죽이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신접한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그런 자를 찾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거하십시오.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성전이니 성전으로 사십시오. 정결하고 거룩한 자는 더러운 자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자를 더럽게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깨끗할 때 더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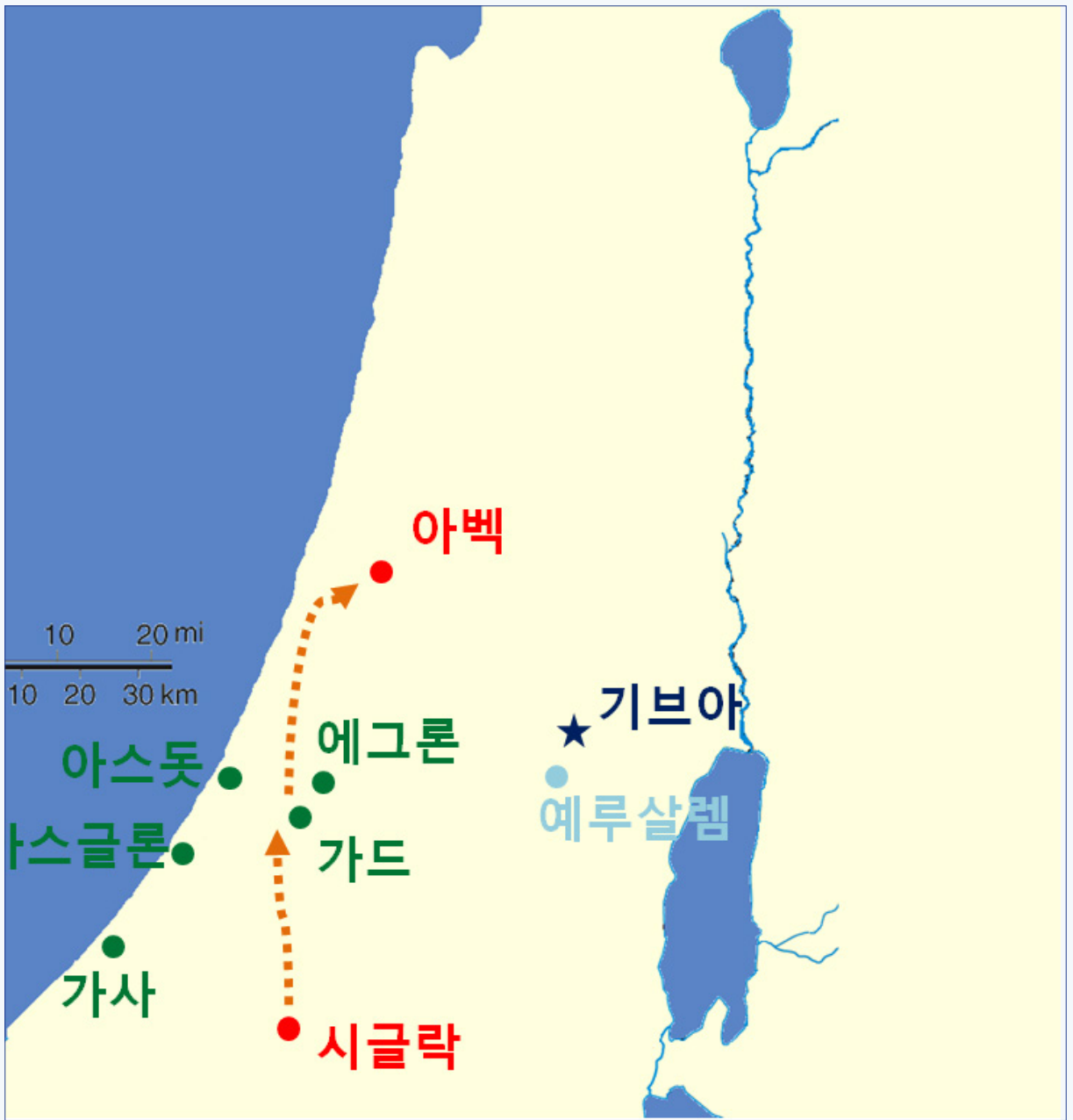
사무엘상 29장 =====

[삼상 29:1]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삼상 29:2]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섯 성읍 군사들이 함께 집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벡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전쟁 준비를 갖추고서 해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사무엘상 28장 4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삼상 28:4]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블레셋 장관들이 아벡에 집결할 때에 수백씩 혹은 수천씩 군사를 영솔하여 나아왔습니다. 다섯 성읍에서 모이는 것이라 보니 그들의 군사 수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의 조직체제를 보면 이미 그들은 백부장과 천부장의 조직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족속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족속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지만 블레셋 족속은 평화보다는 침략을 원했습니다. 블레셋의

민족성은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벙에 집결할 때에 다윗도 그곳에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가드 성읍의 왕인 아기스와 함께 아벙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적군과 함께 진격하는 발걸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블레셋이 좋아서 그곳으로 들어갔으니 좋은 만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다윗이라도 빚겨갈 수 없었으니 우리에게도 빚겨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악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행실로 인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적군에게 나아갔으니 이제는 다윗 스스로 적군이 되어 자신의 형제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상 29: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삼상 29: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 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삼상 29:5]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블레셋 장관들은 다윗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다윗이 아기스 왕과 매우 절친한 사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면 다윗이 아기스의 도움을 입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 함께한 사실에 대해 깜짝 놀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장관들은 아기스 왕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패망케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5절)란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왔으니 저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삼상 29: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삼상 29:7]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삼상 29: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삼상 29: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삼상 29:10]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삼상 29: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장관들은 다윗의 전쟁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장관들의 결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속의 기쁜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8절)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거짓된 말입니다. 단지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한 말입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함께 온 무리와 함께 시글락으로 떠났습니다. 끔찍스러운 상황에서 무사히 탈출한 셈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상황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아말렉 족속에 의해 시글락이 약탈을 당하고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간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은 못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위험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블레셋에 거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처음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했을 때 다시는 가드 성읍에

돌아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따르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을 선택하였지만 결국은 그가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가족과 무리들의 가족들 모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은 씨는 열매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당하는 아픔은 아픔을 가져올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없이 아픔은 없습니다. 연단의 기간은 왕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었지만 블레셋에 거주해야 할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세상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며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장소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

[삼상 30: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삼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삼상 30:2]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삼상 30: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삼상 30: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삼상 30: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삼상 30:6]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삼일에 시글락에 이르렀

습니다. 아벵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75km나 되었으니 저들이 아주 열심히 빠른 속도로 돌아 온 것입니다.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km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급하게 행진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글락에 되돌아 온 것은 그곳에 있는 가족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시글락에 왔을 땐 시글락 성읍이 불에 타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과 아내 역시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약탈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사로잡고선 성읍을 떠날 때에 성읍 전체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성읍을 침노한 것은 시글락에 병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병사들은 모두 아기스 왕을 따라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시글락 성이 비어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은 서둘러 시글락을 침노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4절)고 말하였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랐던 병사들은 참으로 위대한 병사들이었지만 가족들이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에 모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엉엉 울었던 것은 그들의 가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왜 그들이 블레셋 성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을 때에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왜 그때는 조금의 가책이나 양심의 거리낌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저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처절한 통곡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

나눔께서 저들의 가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족을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통곡하며 흘린 눈물의 절반은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저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회개 대신에 돌을 든 것입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돌을 집어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백성들은 시글락이 불에 타고 가족들을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집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은 왜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전이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저들은 다윗의 성품을 본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다윗은 크게 군급해졌습니다. '군급하다'란 말은 <아차르>인데 이는 '답답하다', '곤란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느껴지는 답답함을 말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군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군급해본 적이 없었던 다윗이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 의해 '군급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군급함'이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도 이미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운 환경보다 가족의 문제까지 겹치는 상태는 더욱 심각한 '군급함'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5절)란 구절을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윗은 "...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6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더라'란 말은 <하자크>의 재귀 사역형인 <이트하제크>로 쓰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견고히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용기를 얻어 스스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군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힘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껏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에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의 높은 산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힘이 들어와 그에게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그에게 이런 군급한 고난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두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인만 바라봐도 큰 문제일 텐데 두 여인씩이나 바라볼 대상이 되었으니 두 여인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여인이 아말렉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조금만 방심하게 될 때에 '눈가리개'가 되고 맙니다. 자녀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눈부셔서 더 이상의 빛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도구가 됩니다. 저들은 재물만 바라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

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두 여인'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삼상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삼상 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삼상 30:9]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육백 명이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삼상 30: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다윗은 에봇이 생각났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지성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듯이 에봇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에봇을 이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봇을 이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다윗이 에봇을 이용했더라면 결코 다윗은 이런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여인'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에봇 같은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두 여인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멋져 보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스스로 두 여인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가리개'를 위해 살아갑니다. 스스로 눈가리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눈가리개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안전한 곳에 '눈가리개'를 감추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노력으로 아까운 시간과 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비아달이 자신 곁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여인'을 잃고 났더니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뭉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직접 우림과 둠뭉을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8절 상)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 물었기 때문에 그렇

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하는 백성들의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8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온전한 희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 병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600명과 함께 브솔 시내까지 단숨에 도착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브솔 시내까지는 대략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이 이곳까지 왔을 때는 아마도 하루는 꼬박 행진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벡에서 75km를 행진해 돌아왔는데 곧바로 브솔 시내까지 또 하루를 행진했으니 많은 병사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병사들을 그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들의 수는 자그마치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

루라도 빨리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야만 했기에 피곤한 병사를 이끌고 함께 가는 것은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브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삼상 30:11]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삼상 30:12] 무화과 뭉치에서 떼낸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삼상 30: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뉘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삼상 30: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삼상 30: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

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삼상 30:16]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삼상 30: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삼상 30:18]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삼상 30:19]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삼상 30:20]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함께 했던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그렇게 빨리 아말렉 족속을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십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해결자로 나서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회개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해결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정작 죄는 자신들이 지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신들이 회개치 않으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지요.

아말렉 족속의 종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이 거하고 있는 곳까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가갔더니 그들은 "...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16절)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급습해야 보

다 강력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다윗의 병사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는 만 하루를 의미합니다. 만 하루 동안 저들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도망친 어린 소년 400명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사로잡힌 가족들을 되찾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다른 곳에서 약탈한 것까지 모두 거두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양 떼와 소 떼를 다 탈취하며 가축을 몰고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20절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극적으로 풀리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두 여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인생에 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다윗이 오히려 백성의 칭송을 받고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당신의 삶 역시 다윗의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눈가리개를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귀가 막혀 있으면 뚫린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말렉 족속의 종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주변에 혹 그런 자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안 보일 것이고 당신처럼 안 생겨서 안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삼상 30:21]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삼상 30: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증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삼상 30:23]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삼상 30:24]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삼상 30: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그의 성품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스 왕과 결탁하여 시글락에 세 들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불에 타버리고 가족들을 빼앗겼을 때 잊고 살았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가지고서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브솔 시내에 대기하고 있었던 200명의 병사들을 문안했습니다. "...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21절). 여기서 언급된 '문안하다'란 단어는 <좌알 살롬>으로서 '평안하냐'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서 편하게 브솔 시내에 거하고 있던 잔류 병사들에게 '평안'을 물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오히려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잔류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을 향해 해야 하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잔류 병사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

습은 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잔류 병사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바라본 악한 자들과 비류들은 다윗의 그런 처사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에게 전투한 자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준다는 것은 저들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한 자들과 비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사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미 잔류 병사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줬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 31:26]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을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민 31:27]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미디안을 진멸했는데 이때 거두어들이는 전리품의 절반을 일반 회중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모세의 처사나 다윗의 처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과 후방에 있는 사람 모두를 공평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방에서 일하는 자나 후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상 30: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와 그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삼상 30:27] 벳엘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삼상 30:28]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삼상 30:29]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삼상 30:30]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

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
더라

[삼상 30:31] 없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거두어들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 장로들'이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알고 지내던 장로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유독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실로 보아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처럼 전리품을 선물로 보낸 것이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은 기회가 되었으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빼앗겼던 두 아내를 다시 찾

은 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전리품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있어서 전리품이 귀했더라면 수많은 장로들에게 한꺼번에 선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은혜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형제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욱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무엘상 31장 =====

[삼상 31: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삼상 31: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삼상 31: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삼상 31:4]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삼상 31:5]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삼상 31:6]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길보아 전투가 그의 마지막 전투였으며 그는 그곳에

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궁수에게 활을 맞아 중상을 입어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의 칼에 찔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역대상에서는 블레셋 궁수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대상 10: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대상 10:4]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사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스스로 자결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충한 삶이었고 악령과 함께했던 삶이었기 때문
입니다. 역대상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 10:13]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
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대상 10: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
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사실상 사울
은 다윗보다 10년을 더 오래 살았으며 솔로몬보
다 2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으니 70세에 죽었고 솔
로몬이 20세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 역시 40년간
통치했으니 60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
면 사울은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훨씬 오래 살았
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였을까요?

성경은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다윗이나 솔로
몬보다 더 오래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처량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
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
래 살았던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
고 있습니다. 그는 장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 참으로 불쌍한 죽음이라고 여기셨던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려고 노력하
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
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을지라도 우리의 삶
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아가는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삼상 31:7]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
러 거기 거하니라

[삼상 31: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삼상 31: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삼상 31:10]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 박으매

[삼상 31:11]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삼상 31:12]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벤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삼상 31:13]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칠 일을 금식하였더라

죽은 시체를 돌아다니면서 시체의 옷이나 물건을 탈취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은 사울이 발견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혀져 있음을 듣고서 벤산 성벽에 이르러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돌아와 그곳에 장사하고 칠 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낸 것은 오래전에 사울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의 통치 초기 때에 암몬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이 암몬 자손을 치매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라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라(삼상 11:8 참조). 이때 사울이 저들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저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보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은혜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

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사무엘상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최강추천!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으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까요?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이빛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90-7689